

금수강산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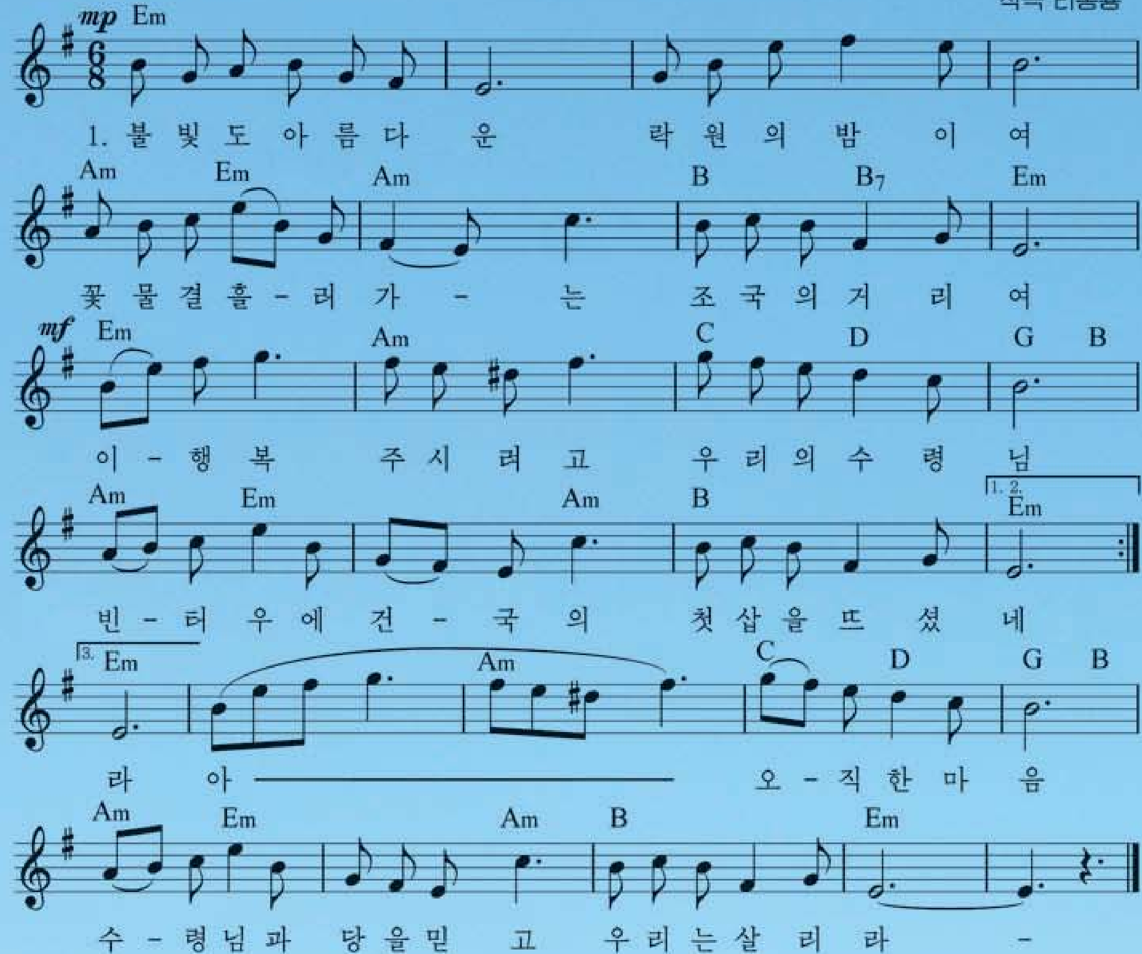
주체106(2017)
루계 제335호 월간

 ISSN 1727—9062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정서적으로

작사 김두일
작곡 리봉룡



2. 포화에 불타버린 페허우에서
우리는 맨손으로 시작하였네
수령님 우리들과 함께 계시며
천리마의 억센 나래 펼쳐주셨네

3. 우리는 제힘으로 우리의 식대로
이 땅에 주체조국 높이 세웠네
오늘도 래일도 언제나 한마음
수령님과 당을 믿고 우리는 살리라

아 오직 한마음
수령님과 당을 믿고 우리는 살리라

차 례

포화속에서 태여난 설계도 · · · 3

일 화

평양이 전하는 이야기 · · · 6

혁명, 승리의 붉은 노을 · · · 8

불굴의 정신력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 · · · 9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솟아 빛나는 려명거리 · · ·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혁명시인 김혁 · · · 20

사회주의조선의 력사가 응축된 박물관 · · · 22

녀사께서 바라시던 념원 · · · 26

관광개발구창설과 그 류형 · · · 27

－ 만리마의 고삐를 틀어쥐고 －

더 많은 광물을 · · · 28

양말생산에서 계속 혁신 · · · 30

우승의 영예를 놓지 않는 학교 · · · 32

좌담회

1950년대 전화의 녀성들은 말한다 · · · 33

편 지

고모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 · · 35

조국의 품에 안겨

삶의 자욱을 새겨가는 길에 · · · 36

고향소식

구성남문이 서있는 도시에서 · · · 38

일심단결이 안아온 기적 · · · 40









인상기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올것이다 · · · 41

훌륭한 조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로동자들 · · · · · 41

고국방문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 · · · · · · · · · · · · · 42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안고 전쟁책동 단죄규탄 · · · · · · · 44

고구려의 건축 · 45

민족의 향기

《흥겨운 농악에 맞추어 즐겁게 춤추세!》 · · · · · · · · · · 46

력사인물

애국명장 연개소문 · 47

조국의 천연기념물 (6) · · · · · · · · · · · · · · · · · · 48

야 화

녀인들을 놀래운 부인 · · · · · · · · · · · · · · · · · · · 49

새로 발굴된 소금생산유적 · · · · · · · · · · · · · · · · 50

조국통일3대원칙과 7.4공동성명 · · · · · · · · · · · · · 51

개성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8) · · · · · · · · · · · · · · 52



강대성의 신화는 깨여졌다 · · · · · · · · · · · · · · · 52

대미추종의 참혹한 후과 · · · · · · · · · · · · · · · · · 54

군사비증강책동에 숨겨진 잔꾀 · · · · · · · · · · · · · 55

《인권재판관》의 변덕 · · · · · · · · · · · · · · · · · · 56

상 식

노비 · 36

로인들의 건강관리 10가지 원칙 · · · · · · · · · · · · · · 37

거문도사건 · 52

조선속담 (순조로움) · 40

유모아

보는 방향이 틀렸다 ·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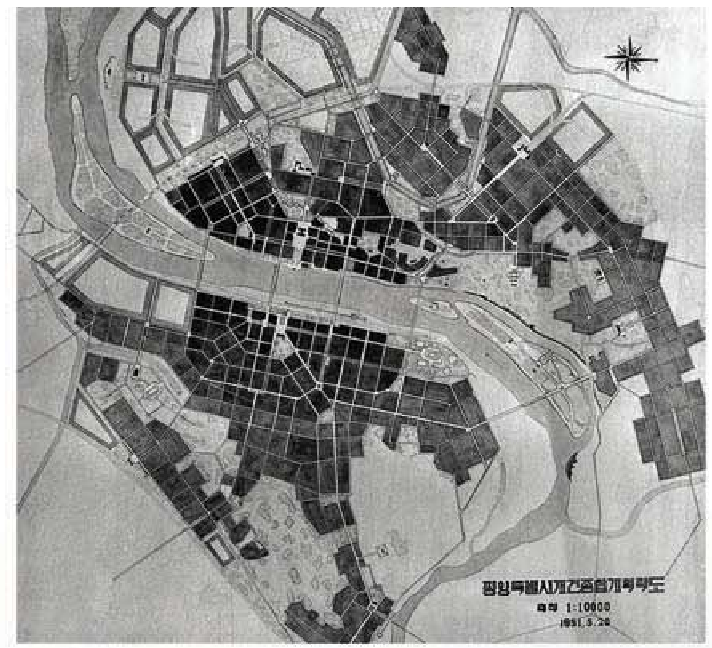
포화속에서 태여난 설계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더욱 못 견디게 사무쳐오는 7월이다. 이 시각 조국인민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그이의 거룩한 혁명생애의 갈피갈피를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그 갈피에는 조국해방전쟁[주체39(1950). 6. 25-주체42(1953). 7. 27.]을 승리에로 이끄신 불멸의 전승업적과 더불어 전화의 포화속에서도 승리한 래일을 그려보시며 수도 평양을 세계에 빛나는 인민의 도시로 일떠세우실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전후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력사가 아로새겨져있다.

돌이켜보면 미제가 일으킨 지난 조선전쟁은 한 나라, 한 민족의 생존터전을 가장 무참하게 파괴한 전쟁으로 인류력사에 기록되여있다. 실지로 미제는 창건된지 불과 2년도 안되는 공화국을 요람기에 삼켜보려고 전쟁의 불을 지르고 공장과 농촌, 인민의 보금자리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였다. 특히 수도 평양시에만도 40여만개의 폭탄을 떨구어 완전히 재더미로 만들어놓았다. 그리고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할것이라고 떠벌이였다. 하지만 미제는 오산하였다. 미제의 야수적폭격이 평양시를 재더미로 만들던 그 시기에 벌써 최고사령부의 작전대우에서는 수도건설의 설계도가 마련되고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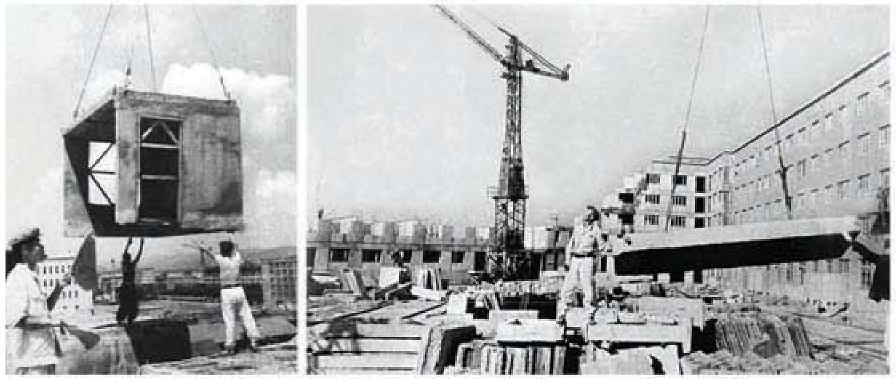
주체40(1951)년 1월 어느날 건설부문의 한 일군을 최고사령부로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장의 종이우에 힘있게 연필을 그어나가시였다. 잠시후 종이우에는 평양시의 륜곽이 형성되였다. 한동안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는 일군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일제통치시기 비문화적으로, 기형적으로 건설되였던 평양시가 전쟁으로 형체마저 남지 않았다고 하시며 우리는 보란듯이 평양을 세계적인 대도시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여기서 중심은 인민을 위한 교통망과 주택, 문화시설을 현대적으로 건설하는데 두며 도시의 중심부에 광장을 만들고 모란봉과 대동강을 따라 대통로를 내고 대동강에는 다리를 건설하는 등 형성방향에 대해서 일일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작성된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



3년간의 전쟁으로 재더미만 남은 평양시의 일부



조립식방법을 받아들여 살림집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건설자들　주체47(1958)년 촬영

이 교시를 주시였다. 당시 그이께서 펼쳐주신 새로운 평양의 모습은 명실공히 인민을 위한 사랑의 도시, 인민의 행복이 넘쳐날 인민의 도시였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겨난것이 아니였다. 그이께서 전쟁의 그 중하속에서도 재더미로 변한 거리를 돌아보시면서 무너진 인민들의 살림집에도 들어가보시고 기관들이 들어있던 건물과 공장자리 등에도 가보시며 새로 일떠서게 될 거리와 주택, 근로자들의 휴식터와 유원지, 공장 등의 터전을 새겨보시고 하나하나 무르익히신것이였다.

그리하여 가렬한 전쟁시기에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가 태여나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맞으며 건설된 천리마거리
주체68(1979)년 촬영

세계의 전쟁력사에는 전화의 나날에 인민을 위한 도시건설을 위해 이렇듯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인민의 어버이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평양시를 인민의 수도로 건설하시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 언제나 앞에 내세우신것은 인민의 요구와 미적감정이 반영된 도시건설이였다. 그것은 인민이 나쁘다면 나쁜것이고 인민이 좋다면 좋은것이였다.

당시 일부사람들이 수도건설에서 서양식건물을 지을것을 타산할 때 민족적특성이 살아나는 조선식건물을 많이 짓도록 하신분도 위대한 수령님이시였고 다층주택들에 우리 인민의 생활풍습에 맞는 온돌방을 놓도록 하신분도 그이이시였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년거리의 한 주택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방안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집주인에게 세대주의 직장은 어디이며 생활비는 얼마나 되고 아이들은 몇명이나 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집이 살기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그이의 물으심에 집주인은 토굴에서 살다가 이런 집에서 살게 되니 더 말씀드릴 여지가 없다고 대답을 드리였다. 이윽고 마루바닥이 차지 않는가 손을 대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에는 온돌방보다는 어떤가고 다시 물어주시였다.

집주인은 마치도 친부모앞에서 속마음을 터놓듯이 늙은 부모를 모시고 갓난아이를 키우는데는 온돌방이 제일이라고, 집이 온돌로 되여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집주인의 말을 긍정해주시며 아주머니가 참 좋은 의견을 제기했다고, 인민들이 좋다면 다 좋은것이라고 하시며 앞으로 모든 다층주택들에 온돌을 놓아주도록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친히 권척을 드시고 방의 길이와 너비를 재여보신 그이께서는 방안이 길다고, 편리하게 적당히 막아주라고 하시였고 부엌에 가시여서는 가시대와 찬장에 있는 그릇들과 쌀독 등을 일일이 보신 다



주체78(1989)년에 건설된 광복거리의 일부

음 부엌을 넓게 해주어야 하겠다고 이르시며 집주인에게 앞으로도 제기할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찾아와 의견을 제기하라고 따뜻이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이 사랑은 그대로 평양시건설에서 혁신이 나래치게 하였으며 기적적인 평양속도가 창조되게 하였다. 그토록 뜨거운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쳐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무한히 고무된 평양시건설자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던 조립식방법을 받아들여 7 000여세대분의 자재와 로력을 가지고 2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였고 평양대극장과 옥류관, 평양학생소년궁전, 공장과 유원지들을 일떠세움으로써 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었다.

평양시의 건설력사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일대 번영기로 기록되고있다. 그 평양번영기를 창조하신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이시다.

당시 조국인민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특히 수도 평양을 인민의 도시로, 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빛내여가려는 충정의 마음을 안고있었다. 이러한 인민의 요구를 그대로 구현하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의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시도록 하시였고 개선문, 주체사상탑 등을 기념비적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평양시를 인민의 도시로 건설하시려는 수령님의 념원이 꽃펴난 웅장화려한 창광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 문수거리 그리고 인민대학습당과 창광원, 5월1일경기장과 현대적인 극장, 체육관 등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수도건설위업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평양은 만리마시대의 기상속에 눈부시게 변모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인민들의 충정의 세계가 보다 높이 발휘되여 금수산태양궁전이 더 숭엄히 꾸려지고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였으며 불과 5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인민의 리상과 꿈이 현실로 펼쳐진 창전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 과학기술전당 등이 훌륭히 일떠섰다. 특히 황홀함과 웅장함, 문명함의 축도인 려명거리를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대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움으로써 조국의 강대성과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속에 전화의 포화속에서 태여난 수도 평양의 설계도는 이렇게 년대와 세대를 이어 더욱더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룩된 창조물도 아니다. 설계도도 전화의 포화속에서 태여난것처럼 평양건설 역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와 압살책동속에서 진행되였으며 모든것을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창조하였다. 말그대로 평양은 승리의 상징으로, 기념탑으로 솟아 빛나고있다.

사랑과 충정의 세계가 펼쳐진 평양의 모습은 수령과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조국, 수령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은 자기 수령을,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받드는 조국에서만이 펼쳐질수 있는 모습이다.

오늘 조국의 천만군민은 전화의 포화속에서 태여난 설계도따라 년대와 년대를 이어 승리를 떨치며 솟아오른 평양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긍지높이 바라보며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보다 휘황찬란한 수도 평양을 일떠세워나갈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본사기자 강경수

◇ 일 화 ◇

평양이 전하는 이야기

기적창조의 예비

주체47(1958)년 1월이였다.

수도건설부문의 로동자들을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데서는 다 계획을 하는데 건설부문이라고 못하겠는가, 다 같이 당중앙에 의하여 지도되고 동등한 당원으로서 한 규약과 한 로선을 받들고 일하는데 왜 못하겠는가고 절절하게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열화와 같은 호소에 건설자들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미장로력을 대폭 줄일 방도며 부재생산을 2배이상 높이겠다는 결의, 층고와 벽체의 두께를 조절하여 세멘트와 강재를 절약하자는 의견… 수많은 안들이 쏟아져나왔다.

그이께서는 수첩을 펼쳐드시고 그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적기도 하시고 손수 계산도 해보시였으며 보다 크고 본질적인 문제를 파고들도록 그들의 생각을 이끌어주기도 하시였다.

시간이 갈수록 토론은 더욱 열기를 띠였다. 그이께서는 한 제대군인로동자가 일어섰을 때에는 어느 전투에 참가했는가를 알아보시고 건설부문에 이런 좋은 동무들이 많다고 대견해하시며 전쟁에서 미제를 때려눕힌것처럼 건설에서도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날 오후에도 계속된 로동자들과의 담화에서는 많은 예비들이 탐구되였다.

이런 속에서 그해 2월에는 평양시건설자들의 회의가 열렸다. 회의참가자들은 7 000여세대분의 자재와 자금, 로력으로 1만 7 000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것을 결의하였다. 이 결의는 얼마후에 또다시 2만세대로 갱신되였다.

2만세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에 대한 드팀없는 믿음, 인민을 위하여 더 좋은것을 더 많이 이룩해주시려는 끝없는 사랑이 낳은 예비였다.

회의후부터 수도건설자들은 하루에 100세대의 살림집을 짓는 기적을 창조하게 되였다. 사람들은 수도건설자들이 창조한 이 질풍같은 속도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며 그것을 평양속도라고 불렀다.

위력과 잠재력의 과시

주체98(2009)년 10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완공된 만수대거리를 돌아보시려 현지에 나오시였다.

일군들의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빠트들을 둘러보시며 만수대거리가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이 희한하게 변모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날 공원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을데 대해서와 아빠트의 외형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신 그이께서는 어느 한 살림집을 찾으시였다. 부엌의 타일과 식사실바닥의 바닥재, 살림방의 벽체, 물가열기가 설치되여있는 욕실과 위생실, 베란다까지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세심히 보아주시였다.

이어 여러 형태의 살림집들을 다 돌아보신 장군님께서는 만수대거리의 살림집들이야말로 사회주의강국에서 우리 인민모두가 살게 될 살림집의 본보기로, 표준으로 된다고,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처럼 웅장화려한 거리가 일떠선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기쁨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훌륭하게 건설된 만수대거리살림집들을 보니 원래 있던 낡은 살림집들을 통채로 들어내고 개건하기로 결심한것이 정말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만수대거리를 훌륭하게 일떠세움으로써 세상사람들에게 이제는 무엇이나 마음만 먹으면 척척 해낼수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만수대거리건설을 성과적으로 완공한것은 그 어떤 세기적변혁도 이룩할수 있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사상정신적위력과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잠재력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됩니다.》

마음먹은것은 다할수 있다

지난 3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려명거리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지난해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고 올해 1월 려명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태양절까지 려명거리건설을 무조건 끝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공사를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신 그이의 령도에 의하여 려명거리건설이 완공의 날을 눈앞에 두게 되였다.

이른새벽 건설장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야경을 이룬 거리의 모습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멋있다고, 낮에 볼 때도 희한했는데 어둠속에서 보니 그것대로 볼만 하다고, 불장식까지 하면 아름답고 황홀함을 말이나 글로써는 다 표현하기 어려울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이어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그이께서는 70층살림집의 외벽타일과 태양빛전지판에 대하여, 특색있게 70층살림집과 55층살림집사이의 기단층을 하나로 련결시키고 채광창으로 된 지붕을 씌워 련결통로종합봉사망을 꾸려놓은데 대하여, 환경보호에도 좋고 휴식장소로도 리용할수 있도록 40층이하의 건물옥상들에 지붕록화기술을 도입한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뿐만아니라 거리의 초고층살림집지구는 물론 다층살림집지구도 자기의 얼굴을 가지고 특색있게 건설되였다고 하시면서 초고층건축군과 다층건축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일떠선 려명거리는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일떠서는 려명거리는 미제와 적대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강대한 나라를 기어이 건설하려는 우리 당(조선로동당)의 구상이 반영된 거리,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의 위력이 깃들어있는 거리,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거리,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경제적잠재력을 과시하는 거리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려명거리는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할수 있고 우리 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살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떨치는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높이 솟아 빛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 * *

려명, 승리의 붉은 노을

수도 평양이 눈부시게 변모되고있다.

어제는 창전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며 과학기술전당, 인민극장,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릉라곱등어관, 자연박물관 등이 멋들어지게 일떠서 사람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 그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높이에서 누리도록 하였다면 오늘은 려명거리가 솟구쳐 사람들에게 더욱 큰 격정과 환희를 안겨주고있다.

저 하늘가에 타오르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느라면 려명거리를 일떠세우기 위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바치신 헌신과 로고가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금수산태양궁전지구에 새 거리를 꾸릴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현지에 나오신것은 지난해 3월이였다. 그이께서는 현지에 나오시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력사의 맹세를 다지신 룡남산을 숭엄한 격정속에 바라보시며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는 뜻깊은 곳에 일떠세우는 거리의 이름을 《려명거리》로 명명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려명거리를 훌륭히 건설하여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감행되는 적들의 제재속에서도 우리 혁명이 계속 승승장구해나간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신 소식은 너무도 놀랍고 경이적이여서 세계는 어리둥절해졌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제재결의》를 떠들썩 보도하던 외신들이 일제히 조선의 려명거리건설소식으로 끓어번졌다. 해낼수 있는가, 만일 진짜로 해낸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기적적인 사변이라고까지 하였다.

하지만 세계는 다 몰랐다. 우리 원수님께서 얼마나 강인담대한 배짱과 담력을 지니신 강철의 령장, 백두의 장군이신가를.

거리의 이름도 명명해주시고 건설의 총적방향과 원칙들을 밝혀주신 그이께서는 주체건축예술의 미래형거리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으며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때없이 보고올리는 천수백건이나 되는 형성안들을 일일이 보아주시고 전문가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리형성의 세부문제도 하늘길을 달리시며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려명거리의 중심축을 잘 살릴데 대하여서도 밝혀주시고 완공되지 않은 200여m높이의 초고층건물에까지 오르시여 근로하는 평범한 인민들이 쓰고살 살림집건설정형과 생활상편의까지 헤아려주시였으며 여러개의 살림집구획들을 설정하고 매 구획들마다 자기의 고유한 특성이 살아나게 건물들을 일떠세울데 대한 문제, 70층살림집과 55층살림집사이의 기단층을 하나로 련결시키고 상업구를 꾸려놓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초고층살림집, 다층살림집건설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도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려명거리건설에서 기본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들을 비롯한 과학자, 연구사들이 살게 될 살림집들과 탁아소, 유치원, 세탁소, 체신소 등 공공건물, 봉사망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것이라고 하시며 세심히 마음쓰시였다.

려명거리건설에 대한 그이의 정력적이고 세심한 지도는 공사전기간 끊임없이 이어져 건설전역에서 다계단으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안아왔다.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분분초초가 다르게 전변되는 신화적인 건설속도를 창조하며 지난해 함북도 북부피해지역 복구건설에 총력을 집중한 속에서도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려명거리건설을 끝내고 지난 4월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그 준공식을 성대하게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려명거리건설에서 창조된 속도야말로 사회주의조선의 전진속도, 사회주의강국건설속도이며 만리마속도였다.

인민군군인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이 창조한 만리마속도는 조국인민의 앞길을 한사코 가로막으려고 피를 물고 날뛰는 원쑤들에게 철추를 내리고 나라의 강대성과 국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떨치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을 수호하고 위대한 령장을 모신 인민이 어떤 신화를 창조하는가를 온 세계앞에 보여주었다.

저 하늘가에 타오르는 붉은 노을, 승리의 그 붉은 노을은 우리에게 말하여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주체101(2012). 7. 17.]로 높이 모시여 우리 조국의 미래는 영원히 담보된다는것을.

본사기자 유선화

불굴의 정신력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



지난 4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5돐을 맞으며 려명거리가 완공되여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새 집에 보금자리를 폈다.

새 거리에 넘쳐나는 사람들의 기쁨넘친 모습을 대할 때면 려명거리건설의 시공을 책임졌던 일군으로서 나의 생각은 참으로 깊어진다.

만리마속도가 창조된 려명거리는 당(조선로동당)과 수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라고 말할수 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자위적인 첫 수소탄시험과 정정당당한 위성발사를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사상최대의 핵전쟁연습과 제재봉쇄소동을 미친듯이 벌려놓고있던 때인 주체105(2016)년 3월 17일 주체의 최고성지와 잇닿은 뜻깊은 룡남산지구에 나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는 뜻깊은 곳에 일떠세우는 거리의 이름을 《려명거리》로 명명해주시고 건설을 선포하시였다.

려명거리건설에서 세계가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전통을 다시금 과시하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호소는 천만군민을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건설속도창조에로 불러일으킨 전투적기치로 되였다.

려명거리건설은 90여정보의 넓은 부지에 4 800세대이상 되는 44동의 초고층, 고층, 다층살림집들과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40여동의 공공건물을 새로 일떠세우고 70여동의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개건해야 하는 방대한 건설이였다.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20일도 안되는 기간에 30여동의 낡은 건물들을 통채로 들어내고 수십만m³의 버럭을 처리하였으며 련이어 50여만m³에 달하는 기초굴착을 끝낸 후 살림집기초콩크리트치기에 진입한 건설자들은 매일 평균 100여세대의 살림집골조를 형성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은 그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참으로 아름차고 방대할뿐아니라 높이가 200여m이고 연건평이 12만m²인 70층살림집을 맡아 건설하여야 하였지만 3만m³의 기초굴착공사는 물론 40층건물의 골조에 드는 량과 맞먹는 기초콩크리트타입공사를 기한보다 앞당겨 성과적으로 끝낸데 이어 한개 층의 콩크리트타입량이 최고 1 000m³가 넘는 지상골조공사를 다그쳐나갔다. 건설의 기계화, 시공의 전문화수준이 높아지고 혁신적인 공법들이 창안도입되였다. 한개 층의 골조시공시간을 36시간으로부터 24시간으로, 또다시 12시간으로까지 단축하는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이룩되여 74일만에 70층초고층살림집골조를 완성하였으며 축구장의 3~4배에 달하는 외벽타일붙이기를 단 13일동안에 끝내는 신화적인 만리마속도가 창조되였다. 공사의 나날 그들은 장산소하천의 15만m³의 감탕을 단 3일동안에 파내고 물길을 돌리였다.

인민군군인들의 혁명적인 투쟁기풍, 일본새를 본받아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도 수십동의 다층 및 고층살림집건설에서 집단적경쟁열풍속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과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하였다.

온 건설장에 차넘친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와 온 나라에서 끊임없이 일어번진 지원열풍도 려명거리건설이 당의 권위보위전, 사회주의수호전, 인민복무전의 혁명적열정으로 나래치게 하였다.

방대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를 벌리면서도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일떠선 려명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한 인민관과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관철하는것을 체질화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완강한 공격기질, 한계를 모르는 무한대한 정신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이다.

혁명의 수도 평양에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려명거리는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래일을 마중해가는 우리 조국의 기상을 누리에 떨치며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길이 빛날것이다.

수도건설위원회 박성훈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솟아 빛나는 려명거리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솟아 빛나는 려명거리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가까이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만 해도 남다른데 오늘은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되고 태양빛과 지열을 비롯한 자연에네르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전기절약기술과 지붕 및 벽면록화기술 등 최신건축기술들이 도입된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록색형거리에서 살고있으니 이 거리 사람들의 격정이 어찌 뜨겁지 않으랴.

볼수록 눈부시고 황홀한 거리, 사회주의문명의 리상거리라고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며 외국사람들도 뒤질세라 연해연방 사진기의 샤타를 눌렀다는 려명거리이다.

어느 일요일 우리는 백두산대국의 래일을 상징할수 있게 훌륭히 일떠서 교육자, 과학자들과 인민들을 위한 만복의 별천지로 펼쳐진 려명거리를 찾았다.

조형화, 예술화, 록색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되여 주체건축예술의 미래와 사회주의문명의 높이를 보여주고있는 거리는 90여정보에 달하는 넓











은 부지에 자리잡고있었다.

금수산태양궁전방향에 주체의 최고성지의 성격에 맞게, 정중성이 보장되게 아담한 다층살림집들이 일떠서있고 룡흥네거리의 영생탑주변에 아아하게 솟아있는 70층, 55층, 30층 등 웅장화려한 초고층, 고층살림집들의 외부장식타일이 푸른색, 흰색으로 되여있어 마치도 이깔나무와 봇나무가 설레이는 백두의 수림속에 들어선것만 같은감을 안겨주었으며 모든 살림집들의 모양 또한 각이하면서도 자기의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장산소하천자리에 20층, 30층고층살림집들과 아름다운 꽃모양의 건물들이 일떠서 거리안에 거리가 형성되여있었다. 2중3중으로 형성된 살림집구획안에는 아동공원과 배구장, 바드민톤장, 로라스케트장 그리고 탁아소, 유치원, 학교와 70층살림집과 55층살림집사이의 기단층을 하나로 련결시키고 채광창으로 된 지붕을 씌운 련결통로종합봉사망을 비롯한 각종 봉사망들과 상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있었다.

참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게 꾸려져있었다.

우리가 70층살림집으로 들어서니 6대의 승강기가 사람들을 기다리고있었다. 초고층살림집들에 설치할 승강기의 시운전만 하여도 500회이상이나 하였다는 이야기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운전을 하는 승강기를 타시고 70층에 오르시였다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으며 승강기에서 내린 우리는 12층 3호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일요일이라 이 집에는 식구들이 다 있었다. 식구는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교원(교수 박사)인 세대주 민병학선생과 그의 안해 한명희녀성, 아들 민철과 며느리 그리고 낳은지 돌반이 되는 손녀까지 합하여 모두 5명이였다.

세대주인 민병학은 집에 이사온 날 온 집안을 돌고돌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려명거리를 건설할 때에 우리 아빠트의 7층 3호집을 두번이나 찾으시여 인민들과 기쁨을 나눌 날이 하루하루 다가온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말씀하시였으며 70층에 오르시여서는 우리는 인민들이 좋아하고 인민의 리익을 존중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힘겨운 일이라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고 그 열매는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감동속에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공동살림방과 부부방, 서재와 자식방, 부엌 등을 돌아보았다. 빈몸으로도 들어와 살수 있게 침대며 책상, 쏘파 더우기 부엌에는 가시대와 가시장, 식탁과 배풍기까지 마련되여있었다.



안주인인 한명희녀성은 《저







의 집을 돌아보아서 알겠지만 록색건축, 령탄소, 령에네르기건축을 지향하는 현대건축의 추이에 맞게 난방도 지열로 보장하고 조명도 태양빛을 리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벽체에는 인체에 대단히 유익하여 공기비타민으로 불리우는 음이온발생기술이 도입된 벽지를 발랐습니다. 이런 집에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평범한 우리가 산다는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라며 눈시울을 적시였다.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그리도 세심히 꾸려진 살림집에는 화대까지 갖추어져있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화초를 비롯한 여러가지 식물들로 각이하게 꾸려진 로대들과 지붕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참으로 려명거리는 안팎으로 일색이였다.

우리는 55층살림집의 30층 3호에도 들리였다. 덩실한 4칸짜리 집에서는 3명의 식구가 살고있었다.

세대주인 **김일성**종합대학 지질학부 교원(부교수) 진영남은 이렇게 말하였다.

《다른 나라에서라면 나같은 교원이 그것도 3명의 식구가 이렇게 큰집에서 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교육자, 과학자들을 위해 기울이시는 은정이 있어 저처럼 평범한 교원이 만리마속도창조의 고향, 려명거리에서 살고있습니다. 저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대학의 많은 교원들이 이렇듯 훌륭한 집들을 무상으로 받아안았습니다. 정말이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훌륭한 과학기술인재로 키워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집을 돌아보느라니 벌써 거리에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어둠속의 려명거리 또한 장관이였다. 불의 야경이라는 말이 꼭 어울리였다.

초고층살림집들은 두말할것도 없고 금수산태양궁전방향의 원통살림집들과 다층살림집들도 별무리인양 불야경속에 잠겨있었다.

우리는 황홀한 거리에 서서 앞으로 우리 조국에는 또 얼마나 훌륭한 거리, 최상의 문명이 응축된 거리들이 태여날것인가를 그려보았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방은심, 류광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혁명시인 김혁

혁명은 동지들을 얻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자본가의 밑천은 돈이지만 혁명가의 밑천은 사람이다. 자본가가 돈을 밑천으로 하여 치부의 탑을 쌓아나간다면 혁명가는 동지를 밑천으로 하여 사회를 변혁하고 개조해간다.

청년시절에 내 주위에는 동지들이 많았다. 그들가운데는 인정적으로 사귄 친구들도 있었고 투쟁과정에 뜻을 같이하면서 얻은 동지들도 있었다. 그 한명한명의 동지들은 모두가 억만금을 주고서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사람들이였다.

우리 후대들이 혁명시인이라고 부르는 김혁도 바로 그런 동지들중의 한사람이였다. 김혁은 나의 청춘시절에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긴 사람이며 나는 그가 세상을 떠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오늘까지도 그를 잊지 않고있다.

내가 김혁을 처음으로 만나던 날이였다.

그날 한문시간이 끝나고 복도에서 상월선생과 이야기를 나누고있을 때 권태석이 뛰여와서 손님이 찾아왔다고 알려주었다. 한번도 보지 않던 사람인데 차광수라는 안경쟁이와 함께 정문에 서있다고 하였다.

과연 정문에는 얼굴이 녀자처럼 곱살하게 생긴 초면의 청년이 트렁크를 들고 서서 차광수와 같이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그가 바로 차광수가 말끝마다 재사라고 자랑하던 김혁이였다. 그는 차광수가 자기를 소개하기도 전에 내앞에 손을 내밀고 《김혁이올시다!》 하며 스스럼없이 악수를 청하였다.

그래서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자기 소개를 하였다.

내가 김혁에게 특별한 친근감을 느낀것은 차광수가 그에 대한 《광고》를 귀에 못이 박히게 한데도 있었지만 김혁의 얼굴모습이 김원우의 얼굴과 비슷하게 생긴데도 있었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김혁형을 데리고 기숙사에 가서 한시간동안만 기다려주지 않겠소? 어지간한 시간 같으면 결강을 하겠는데 공교롭게도 상월선생이 담당한 문학시간이구만.》

나는 김혁에게 량해를 구한 다음 차광수한테 이런 부탁을 하였다.

《허허, 상월선생의 문학시간이라면 모두가 오금을 쓰지 못하니 성주도 장차 김혁이처럼 문학가가 되려는게 아니요?》

차광수는 안경테를 추어올리면서 롱을 하였다.

《김성주라고 문학가가 못된다는 법이야 없지. 그런데 혁명을 하자면 반드시 문학을 알아야 할것 같애. 어떻소? 김혁형, 그렇지 않소?》

김혁은 그 말을 듣자 환성을 올리였다.

《길림에 와서 이제야 귀맛이 당기는 말을 듣는구만. 문학을 떼놓고야 혁명을 론할수가 없지. 혁명 그자체도 문학의 대상이고 모체니까. 문학선생이 그렇게 인기있는 선생이라면 나도 만나고싶소.》

《그럼 후날 소개해주기로 합시다.》

나는 이런 약속을 남기고 교실로 들어갔다.

수업을 끝내고 나오니 차광수와 김혁은 정문에서 불변자본이 어떻고 가변자본이 어떻고 하면서 그냥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두 친구의 음성에서 풍기는 열정은 나에게도 그대로 옮겨졌다. 나는 김혁을 타고난 열정가라고 격찬하던 차광수의 말을 되새기면서 좋은 동무를 또 하나 얻게 되였다고 속으로 기뻐하였다.

《숙소에 가서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왜 그냥 여기에 서있소?》

김혁은 한쪽눈을 쪼프리고 금빛해살이 쏟아져내리는 허공을 바라보았다.

《이 좋은 날 바퀴처럼 집안에 들어가 박혀선 뭘하겠소. 이왕이면 여기서부터 길림거리를 하루종일 거닐며 이야기나 나눕시다.》

《금강산구경도 식후경이라는데 점심식사나 한 다음 북산으로 가든가 강남공원 같은 곳으로 갑시다. 김혁형이 상해에서 불원천리하고 우리를 찾아왔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식사도 안시키면 대접이 너무 소홀하지 않소.》

《길림에 와서 성주동무를 만나니 몇끼 굶어도 배고플것 같지 않소.》

김혁은 성미도 열정적이지만 언행도 활달하였다.

그때 내 수중에는 공교롭게도 돈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돈을 내지 않아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줄수 있는 삼풍려관으로 갔다. 그 려관집사람들이 마음씨가 고운데다가 국수를 잘 만들었다. 려관집어머니에게 사정이야기를 하니 국수 여섯그릇을 말아 한사람앞에 두그릇씩 내주었다.

김혁은 옹근 사흘밤이나 내가 기숙하고있는 방에서 나와 함께 밤을 새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나흘째 되는 날에는 길림일대의 실태를 파악하느라고 차광수가 있는 신안툰으로 갔다.

나는 첫 대면에 벌써 그가 불같은 열정을 지닌 사람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차광수가 덜렁덜렁한 사람이라면 김혁은 불같은 사람이였다. 평상시에는 녀자처럼 조용하고 얌전하게 굴다가도 일단 충격만 가해지면 쇠가마처럼 끓으면서 단김을 뿜는것이였다. 차광수처럼 동양3국을 돌아다니면서 쓴맛단맛을 다 보았다는 풍운아였는데 그런 풍운아치고는 깨끗한 사람이였다.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견문도 넓고 리론수준도 높았다. 특히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은 사람이였다.

우리는 문학과 예술의 사명을 두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럴 때마다 김혁은 문학과 예술은 마땅히 인간에 대한 송가로 되여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그후 길림바람을 좀 쏘이고 난 다음에는 견해를 발전시켜 혁명에 대한 찬가로 되여야 한다고 하였다. 문학관이 아주 혁신적이였다. 우리는 김혁의 이런 장점을 참작하여 그에게 한동안 군중문화계몽사업과 관련된 과업을 많이 주었다. 그가 연예선전대활동을 자주 지도한것도 그때문이였다.

김혁이 시를 잘 지었기때문에 우리 동무들은 그를 《에젠 뽀찌에》라고 불렀다. 그를 가리켜 《하이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김혁은 실지로 하이네나 에젠 뽀찌에를 그 어느 시인보다도 높이 평가하였다. 우리 나라 시인들중에서는 리상화를 제일 사랑하였다.

그가 좋아하는 시들을 보면 대체로 격조높은 문체로 엮어진 혁명적인 시편들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설에서는 주정이 강한 최서해의 작품보다 정서가 짙은 라도향의 작품을 더 좋아하였다.

우리는 김혁의 그런 취미를 두고 세상리치란 참으로 묘한데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우리 생활에는 서로 대조되는것들끼리 결합되여 잘 어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차광수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 《음과 양의 결합》이라고 적절하게 비유하였다. 김혁의 경우에도 음과 양이 조화롭게 결합되여 남다른 문학적개성이 이루어진것이라고 하였다.

김혁은 어렵고 복잡한 혁명사업을 하면서도 짬을 내여 훌륭한 시작품들을 련이어 써내군 하였다. 우리의 혁명조직에 망라되여있던 길림의 녀학생들이 그의 시를 수첩에 베껴가지고 다니면서 즐겨읊었다.

김혁은 남들처럼 종이장을 놓고 썼다지웠다 하면서 시를 창작하는것이 아니라 첫줄부터 마지막줄까지 죄다 머리속에서 다듬다가 수정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면 비로소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치고는 종이우에 옮기군 하였다.

그가 책상을 내려칠 때마다 시가 한편씩 나온다는것을 알고있는 우리 동무들은 《김혁이 또 알(시)을 하나 낳았군.》 하면서 기뻐하였다. 김혁이 시를 탈고하는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공동의 경사로 되고있었다.

김혁에게는 공청생활을 하던 승소옥이라는 미모의 애인이 있었다. 몸매가 날씬하고 복성스럽게 생겼지만 정의를 위해서라면 단두대에라도 서슴없이 올라설 그런 기개와 담력을 가진 처녀였다.

승소옥은 공청조직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하였다.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투쟁이 벌어지던 그해 가을에 거리에서 그가 선동연설을 하는것을 들어보았는데 연설을 아주 맵시있게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사회주의조선의 력사가 응축된 박물관

지난 3월 조국의 수도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5돐을 맞으며 조선혁명박물관이 개건되였다.

근 70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는 조선혁명박물관은 수도의 중심부에 자리잡고있는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거연히 서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 좌우켠에는 항일혁명투쟁편 조각군상과 사회주의건설편 조각군상이 훌륭히 형상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력사가 집대성되여있고 사회주의조선의 력사가 응축되여있는 조선혁명박물관은 그분들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조국의 천만군민의 사상정신적기둥으로, 조선의 국보중의 국보로 빛나고있다.

새로 꾸려진 조선혁명박물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이 색조각상으로 정중히 모셔져있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고 승리의 로정을 새겨온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전통과 자랑찬 력사를 립증하는 수천점의 혁명사적물들과 자료들을 내용별로, 시기별로 새로 진렬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력사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수만점의 사적물들과 자료들이 10개의 시기관과 3개의 별관으로 구성된 100여개 호실들에 품위있게 전시되여있다. 이와 함께 사판, 모형들을 비롯한 전시품들의 직관성과 립체성이 보장되고 전시형식과 조명효과 등이 새로운 경지에서 실현되였으며 해당 시기의 력사적사건들과 사실들이 반경화로 생동하게 형상되여있다.

박물관의 1층에는 총서관이 있으며 항일혁명투쟁시기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까지를 보여주는 관들과 호실들, 보천보전투와 1211고지전투를 보여주는 대형반경화관이 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에 진출하여 일제에게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항거정신과 인민들에게 일제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겨준 당시의 보천보전투환경을 보여주는 대형반경화관과 지난 1950년대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군이 미제침략자들과 싸워 어떻게 이겼는가를 1211고지전투를 통하여 보여주는 대형반경화관이 생동하고 특색있게 꾸려져있다.

2층에는 사회주의전면적건설시기로부터 오늘의 사회주의강국건설시기를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관들과 호실들로 매우 큰 분야를 이루고있다.

여기에서는 사회주의건설과 준엄한 사회주의수호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령도하시고 인류자주화위업에 거대한 기여를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전인미답의 선군혁명의 길을 헤치시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떨치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풍모를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자료들과 그이께서 사회주의강국건설과 군사강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해 투쟁하신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별관으로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이 있





으며 조국통일관, 해외동포관이 있다. 그리고 모든 홀과 복도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진문헌들과 혁명사적물 등을 정중히 모심으로써 이곳을 하나의 교양마당으로 되게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혁명전사들사이의 동지적관계가 얼마나 숭고하고 열렬한것인가를 력사적사실로 보여주는 감동적인 자료들이 전시되여있으며 조국통일관에는 해방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가장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업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해외동포관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4개 호실에서 보여주고있다.

호실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인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사상리론을 제시하시고 해외교포조직을 결성하신 자료들, 해외교포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해외동포들과 함께 계시는 사진문헌들,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사진, 재일동포들이 미일반동들의 온갖 책동으로부터 지켜낸 공화국기발, 귀국선 《만경봉》호모형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본부사진 등이 전시되여있다.

지난 3월 새로 개건된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박물관이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개건된것은 거대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이자 사회주의조선의 력사이라고, 조선혁명의 전로정이 응축된 조선혁명박물관은 명실공히 수령님의 혁명박물관, 장군님의 혁명박물관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조선혁명박물관이 가장 숭엄하고 완벽하게 꾸려지게 됨으로써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의 승리의 력사가 어떻게 마련되고 빛나게 이어져오는가를 조국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줄수 있게 되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조선중앙통신







녀사께서 바라시던 념원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녀사(1892. 4. 21-1932. 7. 31.)께서 지니신 하나의 철학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사는것이 아니라 명이 모자라서 못산다.》, 《돈이라는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생기기도 한다.》이다.

솔직히 말하여 녀사의 일생은 힘에 부친 고생살이의 련속이였다.

녀사께서는 만경대에 계실 때에도 열두식구나 되는 큰 집안의 장손며느리로서 늘 바삐 지내시였다. 남편의 뒤바라지에 시부모공대, 집안팎을 거두고 설겆이를 하며 빨래를 하고 길쌈을 하느라면 허리를 펼 사이가 없으시였다. 게다가 낮에는 농사일로 진종일 밖에 나가있다나니 머리를 들고 해를 쳐다볼 경황도 없었다. 어쩌다 밥을 하였을 때에도 녀사한테만은 가마치가 차례졌고 죽을 쑨 날에는 제일 멀건것을 잡숫군 하시였다. 또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로정을 따라 조국과 이역땅의 여러곳으로 자주 이사를 다니시느라 단란한 가정생활도 못해보시였다.

하지만 녀사께서는 남들이 겪는 불행을 가셔주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어느해 봄날 후창땅에서 윈다리와 목덜미에 종처가 생겨서 중태에 빠진 아이를 업은 한사람이 김형직선생님을 찾아왔다. 녀사께서는 그 아이를 수술하면 왔다갔다 할수 없다고 하면서 집에서 치료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신 김형직선생님의 말씀대로 온갖 성의를 다하여 돌보아주시였으며 병이 나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였을 때에는 환자의 집에서 내놓은 돈 1원에 75전을 더 보태 옷감을 마련하여 환자에게 안겨주시였다.

언제나 돈이 부족한 살림이였으나 녀사께서는 한번도 돈에 구애되지 않으시였다.

언제나 자신의 생활철학을 가슴에 지니고 녀사께서는 자식들을 키우시였고 그들의 가슴에 돈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을 심어주시였으며 어머니로서의 그 뜨거운 육친적사랑도 혁명을 위해 깡그리 바치시였다.

조국의 해방은 강반석녀사께서 한생토록 바라시던 념원이였다.

일찌기 일제의 총칼밑에 략탈당하고 신음하는 조국강토와 온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시며 녀사께서는 무장투쟁만이 조국의 해방을 이룩할수 있고 겨레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시였다.

이런 불타는 열망을 지니시고 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김형직선생님께서 유산으로 남기신 두자루의 권총을 넘겨주시며 이 총을 가지고 아버님이 못다한 조국해방의 위업을 꼭 이룩하라고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녀사께서 하신 그날의 뜻깊은 당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성스러운 선군혁명위업수행의 길에 나서도록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강반석녀사께서는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으며 멀고 험한 길을 걷고 걸으시였다.

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대로 반일부녀회를 조직하시고 광범한 녀성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반일의 기치아래 튼튼히 묶어세우시여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쌓는데 크게 기여하시였다.

병약하신 몸으로 부녀회원들을 조직동원하여 군복도 만드시고 군량미도 마련하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무장대오결성과 관련한 긴급임무를 받고 먼길을 떠나는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을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하여 반일인민유격대는 주체21(1932)년 4월 25일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고고성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울릴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반석녀사의 탄생 100돐이 되는 뜻깊은 날에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 혁명활동에 참가하여 나와 나의 동무들의 혁명사업을 적극 도와주었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지금도 안도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할 때 있었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추억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사께서 바라시던 그 념원을 안으시고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시여 마침내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 바라시던 그 념원,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본사기자

관광개발구창설과 그 류형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문명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관광업을 보다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국의 여러곳에 관광개발구들을 창설하고 특색있게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예로부터 산좋고 물맑은 삼천리금수강산으로 알려져있는 조국에는 관광자원이 무진장하다.

공화국정부의 관광자원보호정책과 생태환경보호정책에 의하여 관광자원은 원상그대로 유지보호되고있다.

조국에서는 관광업을 기본경제부문의 하나로 정하고 관광개발구를 창설하고 특색있게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현재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함경북도 온성도관광개발구, 황해북도 신평관광개발구, 평안북도 청수관광개발구, 무봉국제관광특구를 내올데 대한 법령이 선포되고 그 사업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국가적으로 관광개발구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독립적인 국가관리기구체계가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정연하게 세워져있다.

공화국정부는 관광개발구개발을 자체의 힘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한편 주변나라들뿐아니라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 나라들과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유치를 장려하고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나라의 투자환경을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한 투자설명회, 참관, 강습 등이 진행되고있으며 관광개발지역에 대한 국제투자의 유리한 법률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들도 진행되고있다.

이미 《경제개발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경제개발구기업창설운영규정》, 《경제개발구창설규정》, 《경제개발구관리기관운영규정》, 《경제개발구로동규정》, 《경제개발구환경보호규정》 등 개발구관련법들과 규정들이 제정채택되였으며 변화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수정보충되고있다.

조국의 관광개발구들에서는 외국투자가들에게 기업창설 및 운영, 토지리용, 세금특혜, 출입조건, 로력채용에서 특혜가 보장되며 자유롭고 독자적인 경영활동, 투자재산보호, 합법적인 소득에 대한 송금, 인적 및 물질적재산에 대한 법률적인 특혜와 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조국에서는 관광개발구의 류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관광개발구의 류형은 일반적으로 개발형식과 관광목적에 따라 구분할수 있다.

먼저 관광개발구는 개발형식에 따라 국내외관광객들이 자유로이 관광활동을 진행할수 있는 열린형과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하여 그들이 일정한 지역안에서만 관광활동을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닫긴형으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관광개발구는 관광목적에 따라 산악관광개발구와 해안관광개발구, 도시관광개발구와 농촌관광개발구, 문화전통관광개발구와 치료관광개발구, 휴식관광개발구와 종합관광개발구로 구분할수 있다.

산악관광개발구에서는 스키타기, 등산, 탐험, 아름다운 산천경개와 폭포부감, 자연동식물구경, 동물사냥, 식물채집을 할수 있으며 해안관광개발구에서는 해수욕과 일광욕은 물론 뽀트, 돛배, 물스키 등을 탈수 있고 물고기잡이와 해안경치감상, 해저탐험을 할수 있다.

도시관광개발구는 도시전체를 하나의 관광지로 개발한다든가 한 도시안에 여러개의 관광지들을 개발하기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투자자금이 요구된다. 하지만 농촌관광개발구는 신선한 자연환경속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려는 도시주민들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되는것만큼 적은 투자자금으로써도 충분하다.

문화전통관광개발구는 관광객들에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의 문화전통과 활동을 실감있게 보여주고 체험할수 있게 하고 치료관광개발구는 전통적인 치료나 의료봉사를 제공해주고있으며 휴식관광개발구는 여러가지 유희, 오락시설들을 리용하여 봉사를 진행한다.

종합관광개발구는 우에서 언급된 관광봉사의 일부나 전부를 결합하여 제공해줄수 있는 개발구로서 관광형태와 내용에서는 제한이 없지만 모든 관광활동이 하나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종합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인민경제대학 공혁



- 만리마의 고삐를 틀어쥐고 -

더 많은 광물을





대규모의 연, 아연광물생산기지인 은파광산에서 더 많은 광물생산성과로 만리마선구자대회(대회는 올해말에 진행된다.)를 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지난해 충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광산에서는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매달 광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광산의 일군 오창석은 말하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다. 과학기술보급실에서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한 로동자들과 일군들은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 기본생산공정들에 대한 현대화를 진행하여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그의 말대로 광산에서는 채광, 선광계통에 새 기술들을 받아들이였으며 설비부속품과 건설자재들을 생산할수 있는 기지들과 수리기지들을 꾸려놓고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자체로 생산하고 수리하여 광물생산에 이바지하고있다.

선광직장에서는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이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5호마광기계통의 콤퓨터화를 실현하고 1, 2호마광계통의 종합적인 콤퓨터조종체계를 확립한데 이어 수입에 의존하던 부선기회전자를 자체로 만들어 리용함으로써 선광계통에서 연, 아연실수률을 더욱 높이고있다.

광명갱, 굴진갱 등 여러갱들에서는 새로운 발파방법인 집초분리장약에 의한 속빼기발파방법을 받아들여 발파효률을 80%로 높이고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나가고있다.

공무직장의 로동계급도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체의 힘으로 중주파유도로를 새로 도입하여 광차, 전차의 바퀴와 치차류를 비롯한 주강품들을 자체로 생산하여 광물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광산의 그 어디에서나 은이 나는 자강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은 광물생산량을 하루가 다르게 높이고있다.

선군시대공로자인 광명갱 갱장 최승빈은 《자력자강만이 우리가 살길이며 흥하는 길이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만리마속도로 내달려 더 많은 광물을 생산함으로써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에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철민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양말생산에서 계속 혁신

《철쭉》상표를 단 양말들에 대한 조국인민들의 수요는 대단히 높다.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는 남, 녀양말과 아동양말, 학생양말, 운동양말 등 근 20종에 달하는 양말제품들이 평양양말공장에서 생산되고있다.



이 공장 종업원들의 말대로 그들은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아름다운 《철쭉》꽃을 피워가고있다.

공장에서는 로동자, 기술자들의 높은 정신력을 발동하여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고 양말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이 공장의 일군 차국철은 말하였다.

《생산공정의 현대화이자 생산정상화이고 생산장성이라는 것을 명심한 우리 공장에서는 이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습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준비직장에 고온고압염색기를 제작설치하여 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공장자체의 힘으로 고온고압염색기를 제작설치함으로써 양말생산원료인 실의 염색시간을 훨씬 줄이고 제품의 다색화를 실현하였다.

기술준비실에서는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기호에 맞으면서도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갖가지 양말과 상표도안프로그람들을 개발하여 보다 다양하고 질좋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게 하였으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양말원료를 분석하여 양말의 질을 개선하고있다.

남자양말직장에서는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기대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 양말생산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이곳 직장에서는 기대공들의 기술학습을 정상적으로, 질적으로 하여 그들이 현대화된 자기 기대들에 정통하도록 함으로써 CNC화된 양말기계들을 능숙히 다룰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이곳 직장의 제직작업반에서는 1. 4분기 기간에 벌써 김남향, 박현희, 백충심을 비롯한 년간계획완수자, 상반년계획완수자들이 배출되였으며 그뒤를 이어 수많은 혁신자들이 만리마속도로 내달리고있다.

공장의 일군인 정향미는 《우리는 질좋은 양말이 폭포처럼 쏟아지게 하여 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안도록 하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더 질좋고 멋있는 <철쭉>꽃을 피워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빛나게 장식하겠습니다.》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현강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우승의 영예를 놓지 않는 학교

지난 4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경축하는 청년학생들의 야회때였다. 노래 《조국도 빛나리 청춘도 빛나리》의 선률에 맞추어 예술체조와 체육무용장에 출연하여 우아하면서도 재치있는 률동을 펼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체육무용수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예술체조로 전국에 소문난 평천구역 새마을초급중학교의 체육무용소조원들이였다.

학교들에서 체육을 대중화, 전문화할데 대한 국가의 조치에 따라 이 학교에 녀학생들의 육체적조건과 정서심리적특성에 알맞는 예술체조전문화소조(당시)가 조직된것은 지금으로부터 37년전이였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학교는 28차례나 전국적인 예술체조경기[주체104(2015)년부터는 체육무용경기에 참가]에서 우승하였으며 3련승을 해야 학교가 완전히 자기의것으로 소유할수 있는 우승컵만 하여도 9개, 소조원들이 받은 메달은 무려 550여개나 된다. 그 나날 학교의 소조원들은 수십차례의 집단체조행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이 과정에 많은 학생들이 4.18 최우수상을 수여받았고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체육부문과 예술단체, 학교들에서 감독, 선수, 배우, 교육자로 일하고있다.

오늘 학교에서 전도가 기대되는 소조원이라고 하면 정청죽을 먼저 꼽는다. 그는 하루 공부가 끝나면 소조실에 남먼저 달려와 유연성운동, 조약운동, 균형운동에 이어 높은 기교를 요구하는 곤봉비대칭던져잡기동작을 비롯한 어려운 동작들을 숙련하기 위해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정청죽뿐만아니라 하국심, 송효화를 비롯한 이곳 학교의 소조원들은 해마다 진행되는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에서 또다시 우승의 영예를 지니기 위하여 땀을 아끼지 않고 훈련에 열정을 쏟아붓고있다.

이곳 학교의 성과는 결코 소조원들의 천성적인 재간에만 의해 이룩된 성과가 아니다. 국립교예단에서 교예배우로 이름을 날린 공훈배우 차혜순은 이렇게 말하였다.

《사실 나는 중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나에게 예술체조에 소질이 있다고는 생각해보지 못하였다. 초보적인 체조동작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던 내가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교예배우로까지 될수 있은것은 모교의 훌륭한 교육조건과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예술체조를 배운 결과이다.》

실지 학교에서 이러한 성과가 이룩된데는 30여년간 후대교육사업에 자신을 깡그리 바쳐가고있는 공훈교원 박향숙의 노력도 깃들어있다.

학교의 일군인 김원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사회주의무료의무교육제도의 혜택속에 평범한 로동자, 사무원의 자식들이 자기의 희망을 활짝 꽃피우고있으며 박향숙교원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을 비롯하여 높은 급의 훈장을 수여받고 공훈교원으로 되였다. 후대교육사업에 자기의 진정을 다 바쳐가는 교육자들이 있어 우리 학교의 영예도 빛난다고 생각한다.》

글 본사기자 김철민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1950년대 전화의 녀성들은 말한다

참가자
위필순: 조국해방전쟁 참전자
최복순: 조국해방전쟁 참전자
김옥순: 로력영웅, 전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조사공
연 옥: 본사기자

기자: 전승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때에 1950년대 조국해방전쟁승리에 기여한 녀성전쟁로병, 전시녀성공로자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여 반갑습니다.

조국해방전쟁 하면 정말 조국땅을 물어뜯으며 달려드는 미제침략군의 땅크앞으로 반땅크수류탄을 안고 나아가 묵사발을 낸 조순옥영웅이며 한마음한뜻이 되여 전선을 원호한 남강마을의 녀성들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 녀성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이 영화화면처럼 안겨옵니다. 전화의 그날 위필순할머니는 정찰병이였다던데.

위필순: 예, 정찰병이였습니다. 해방전에는 상상도 못해본 해방[주체34(1945). 8. 15.]후의 행복하던 우리의 생활을 빼앗기 위해 침략의 불을 지른 미국양키들이 너무도 가증스러워 나는 비록 녀성이고 나이도 16살이였지만 손에 총을 잡고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원쑤격멸의 전방에서 싸우고싶어 부대에 완강히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찰구분대에서 싸우게 되였는데 거기에는 녀성전투원이 저까지 3명이였습니다. 비록 녀성이였지만 저희들은 남자들과 꼭같이 전투에도 참가하여 용감하게 싸웠고 정찰임무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위필순

최복순: 해방전 부자집아이보개로 등이 마를새 없었던 저도 해방후에야 학교에 가서 마음껏 배우게 되였습니다. 그 소중하고 행복한 생활이 미제가 일으킨 전쟁으로 깨여진다고 생각하니 정말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어렸지만 남먼저 전선으로 탄원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높이 받들고 적들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즉시 결정적인 반공격전을 개시하여 공화국북반부에 깊이 침공해 들어왔던 적들을 격멸구축하면서 남으로 진격하는 인민군부대들과 함께 저도 위생병으로서 서울해방작전과 대전해방작전, 락동강도하전투와 포항해방전투 등에 참가하였습니다.

지금도 잊을수 없는것은 락동강도하전투때의 일입니다.

많은 부상자들을 후송할 임무가 저의 후송대에 맡겨졌습니다. 후송대에는 오만옥아바이와 생순이라는 간호원과 저밖에 없었습니다. 탄알도 다 떨어졌고 보총은 한자루밖에 없었습니다. 며칠동안 쌀알 한알 입에 넣지 못한 부상자들은 우리에게 무작정 피값이라도 하고 죽겠다고 하면서 전투마당에 나가겠다고 야단이였습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후퇴명령을 받은 우리 후송대는 다시 전우들의 피로 물든 락동강을 건느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 부상자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날 밤 우리는 미제침략자들과 괴뢰군들이 모여있는 장

소에 날쌔게 돌입하여 보총 8정과 수류탄 8알, 한상자의 탄약을 로획하였습니다.

우리 후송대를 소멸하겠다고 머리우에서 놈들의 비행기가 왱왱 돌아치며 미친듯이 폭탄을 퍼부어댔지만 저희들은 기어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김옥순

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맞으며 진행된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서 우리의 전쟁로병들은 영웅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력사를 체현한 증견자들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과 함께 불리우는 시대를 대표하는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녀성들은 전선에서뿐아니라 전시생산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 전쟁승리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김옥순 : 그렇습니다. 그 준엄한 시련속에서 전시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해나가는 우리들의 가슴속에는 녀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이 꽉 들어차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6(1947)년 4월 18일 우리 공장에 찾아오시여 녀성로동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개선해주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해방후 건당, 건국, 건군위업을 실현하시는 속에서도 북조선민주녀성동맹(당시)을 무어주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시여 우리 녀성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과 삶의 권리를 안겨주시였습니다.

조국이 얼마나 귀중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은덕이 얼마나 큰가를 실체험으로 절감하였기에 저와 공장의 녀성로동자들은 자나깨나 전시생산을 무조건 보장하겠다는 일념으로 폭격에 정전이 되면 손으로 기계를 돌려갔습니다.

정말이지 그때 우리 녀성로동자들의 정신상태는 보통이 아니였습니다. 매일과 같이 미제의 비행기가 하늘을 새까맣게 덮으며 날아들어 공장에 폭탄을 떨구었지만 우리는 한시도 기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필순 : 1950년대 전화의 나날 우리 녀성들은 전선에서도 후방에서도 남성들과 꼭같이 싸우고 일하면서 정신력이 강하면 원자탄을 휘두르는 제국주의침략군대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최복순 : 수적, 기술적우세를 자랑하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한것은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최고사령부였으며 세상을 경탄시킨 무비의 용감성의 원천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원쑤를 치는 백두의 혁명정신이였습니다.



최복순

김옥순 : 《강대성》의 신화를 자랑하던 미제가 방대한 전쟁장비와 추종국가군대들까지 총동원하여 발악적인 공세를 거듭했지만 자기것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된 우리 인민, 우리 녀성들을 절대로 놀래울수 없었으며 전쟁 전기간 심대한 정치군사적, 정신도덕적참패를 면할수 없었습니다.

기자 : 오랜 세월 한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날수 없었던 우리 녀성들을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력사의 힘있는 창조자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싸운 녀성전쟁로병들과 전시녀성공로자들모두에게 다시한번 뜨거운 인사를 보내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　　*　　*

중국 료녕성 심양시 철서구 흥표로 2-3호
D3루 3현관 5층 2호 김상숙고모 앞

고모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시작되는 요즘 고모의 건강이 몹시 걱정됩니다.

물론 곁에 자식들과 손자들이 있어 어련히 돌봐주고있겠지만 멀리에 있는 이 조카의 마음도 항상 고모의 건강을 바라고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님과 제가 중국을 떠나 조국의 품에 안길 때 동구밖까지 따라나서며 눈물짓던 고모는 참으로 예쁘디예쁜 새각시였습니다. 이제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는 백발이 되였지만 젊은 시절의 정깊은 그 모습은 아직도 저의 기억속에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조국방문의 길에 올랐던 고모와 뜻깊은 상봉을 한 때로부터 벌써 여러달이 흘러갔습니다.

고모에게 그동안의 우리 가정소식을 전하고싶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3월 중순에 저와 우리 집사람은 일흔번째 생일을 맞는 형님을 축하해주기 위해 평안북도 철산군에 오래간만에 찾아갔습니다. 형님의 생일날 저는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해서라기보다 저의 노래가 압록강건너 중국땅 저 멀리로 울려가면 고모도 들을것처럼 생각되서였습니다. 그러면 고모가 금시라도 얼굴에 환한 미소를 함뿍 담고 형님의 집마당에 들어설것 같았습니다.

저는 형님과 함께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불렀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

조국의 품에 안기여 저는 자기 수령을 어버이로 모시고 사람들모두가 친형제로 사는 내 나라가 제일이라는것을 매일, 매 시각 느끼며 성장하였습니다.

고모도 알고있다싶이 저는 평북종합대학 신의주의학대학에서 부교수, 강좌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세 아들도 나와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맏아들 용렬이는 의학연구원 정신신경연구소 연구사로, 둘째 봉렬이와 셋째 강렬이는 우리 대학에서 저와 함께 교편을 잡고있습니다.

그러고보면 우리 가정은 4부자가 나라의 의학교육부문에 적은 힘이나마 바쳐가고있습니다.

올해 설명절을 맞으며 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받아안았습니다.

대학교단에서 흘러온 나의 한생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떠받들려 값높게 수놓아진 한생입니다.

저와 세 아들은 자나깨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며 그이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습니다.

고모도 조국방문의 나날 체험하다싶이 조국인민들은 세월을 주름잡아 만리마의 속도로 힘차게 내달리며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습니다.

올해 려명거리가 훌륭히 완공된 소식을 중국에서도 다 들었을것입니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올해에도 조국에 꼭 와보십시오.

조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평안북도 신의주시 남송동 25인민반
김상건조카 올림

삶의 자욱을 새겨가는 길에



박사 부교수 리창기

얼마전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를 찾았던 우리가 연구소일군의 방에 들어섰을 때였다. 연구소일군과 어느 한 기계공장에서 왔다는 일군사이에 이런 말이 오고갔다.

《…앞서 말한 공장의 그 설비를 현대화하자면 꼭 리창기선생님이 있어야 합니다.》

…

《…그가 맡고있는 연구과제가 결속중인데 끝나면 인차 보내겠습니다.》

…

공장에서 온 손님을 바래우고난 연구소일군은 우리에게 압착가공연구실 실장 리창기선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며 그가 현실에서 제기되는 적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한데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연구소일군의 말에서 호기심을 느낀 우리는 그와 마주앉았다.

그는 《별로 해놓은것이 없지만 40년간의 나의 연구사업에서 그래도 성과라면 아마 6MN수평관압출프레스일것입니다.》라며 추억의 갈피를 번지였다.

어느해인가 한 기계공장에 나갔던 그는 로동자들의 안타까운 호소를 듣게 되였다. 한것은 공장에서 쓰고있는 수입산 수평관압출프레스가 강도가 센 유색금속관소재는 압출하지 못하는것으로 하여 로동자들은 소재에 드릴로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있었다. 결과 제품생산에서 자재와 로력, 시간이 많이 드는것은 물론 생산량도 늘일수 없었으며 제품의 정밀도도 높이지 못하였다.

로동자들의 작업모습과 제품을 보는 그의 마음은 가볍지 못하였다.

그는 새로운 수평관압출프레스를 개발하는것이 압착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자기가 응당 해결하여야 할 연구과제로 정하고 이 사업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유압수행기구만 해도 10여개나 되고 매 수행장치들마다에 많은 전기장치요소들이 들어가는 복잡하면서도 덩지가 큰 설비를 만들어낸다는것은 결코 헐한 일이 아니였다. 어떤 때에는 기술문헌탐독으로 인민대학습당에서 때식도 잊군 하였고 어떤 때에는 대소한의 추운 날씨에 형타를 실은 화물자동차를 타고 산세험한 령길을 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와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설비가공으로 밤낮이 없이 일감을 놓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 나날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눈앞에는 일본에서 살던 날들과 조국의 품에 안겨 꿈같이 흘러간 행복한 날들을 비롯하여 지나간 시절에 있었던 일생 잊혀지지 않는 생활의 토막들이 선명한 화면처럼 펼쳐지군 하였다. 그러면 알게모르게 받아안은 조국의 하많은 사랑에 보답하여야 한다는 자각으로 하여 그는 다시 연구사업에서 분발하군 하였다.



청년연구사들과 함께

하기에 일부 사람들이 그가 련속 실패하는것을 보다못해 다른 나라에서 이미 개발한 기존공식대로 하는것이 좋지 않겠는가고 할 때에도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존공식은 과학연구의 기준으로, 출발점으로 된다. 하지만 조국의 현실과 맞지 않는 기성리론과 방법은 우리의 기준으로 될수 없다. 우리의 기준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는것, 바로 이것이다.》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한 일이라면 지구상에 없는 길을 닦아서라도 가야 한다는 과학적신념과 의지를 지닌 그였기에 마침내 1년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6MN수평관압출프레스를 개발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

그는 현실에서 긴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를 푸는것은 응당한 일이라며 자기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른 연구사들을 통해서야 그가 개발한 프레스의 우월성이며 그의 창조성과들에 대해 좀더 깊이 알아볼수 있었다.

실지 그가 개발한 프레스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쓰이고있는 프레스와는 달리 힘받이요소들의 구조가 보다 합리적으로 선정되고 기둥이 예비응력구조물로 제작되여있다. 하여 설비의 전체 질량이 작고 강성과 작업안내정밀도가 훨씬 높을뿐아니라 관압출공정을 콤퓨터로 자동감시조종할수 있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삼천메기공장의 자동먹이공급기의 제작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관굴곡기의 CNC화실현을 비롯하여 그가 나라의 기계공업발전에 쌓은 공로는 참으로 크다. 그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과 박사 부교수의 학위학직 그리고 훈장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그는 국가과학원에서 연구사로 일하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자기를 위한 걸음에는 남는 자욱이 없지만 조국과 인민을 위한 참된 삶이 남긴 자욱은 영원하다고.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상식

노 비

노비는 봉건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억압착취당하던 최하층 피지배계급의 신분이였다. 노비를 《종》이라고 불렀는데 노는 남자종, 비는 녀자종을 가리킨것이다.

노비는 량인과 함께 생산의 기본대중을 이룬다. 노비의 신분은 대대로 물려받게 되여있으며 부모의 어느 한쪽이 노비인 경우에는 그 자손도 노비로 되였다. 극히 례외적인 경우에만 엄격한 제한조건아래 노비신분에서 면제되였다.

노비는 그 상전의 지위에 따라 공노비(국가에 매여있는 노비), 사노비(개인에게 매여있는 노비)로 나뉘였다.

공노비는 다시 경아문노비(중앙관청에 소속된 노비)와 외아문노비(지방관청에 소속된 노비)로 나뉘여졌다.

사노비는 그 예속상태에 따라 솔거노비(상전과 같이 있는 노비)와 외거노비(별거노비, 상전과 따로 사는 노비)로 나뉘였다.

*　*　*

상식

로인들의 건강관리 10가지 원칙

① 적어도 8시간은 자야 한다.

② 식사를 규칙적으로 절도있게 해야 한다.

영양가가 높고 소화가 잘되는 음식, 여러가지 집짐승젖, 오곡, 신선한 남새, 과일 등을 먹으며 자극성음식은 적게 먹어야 한다.

차를 많이 마시며 찬음식을 먹지 말고 편식하지 말아야 한다.

담배와 술을 끊어야 한다.

③ 알맞춤한 몸질량을 유지해야 한다.

④ 정확한 몸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슴은 쭉 내밀고 배는 뒤로 당기면서 곧바로 걸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허리가 구부러지는것을 막을수 있다.

⑤ 집에만 있지 말고 늘 바깥출입을 하며 운동을 하여야 한다.

심한 운동은 피하며 산보와 천천히 달리는것과 같은 운동을 배합하여야 한다.

⑥ 대변을 규칙적으로 보아야 한다.

대변은 매일 한번씩 보되 반드시 아침식사전에 보는 습관을 붙여야 한다.

변비가 온다고 설사약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⑦ 입안위생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아침과 저녁식사후에 치솔질을 하는 습관을 붙여야 한다.

⑧ 제때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목욕은 겨울철에는 1주일에 한번, 여름철에는 매일 한번씩 하는것이 좋다.

⑨ 전염병을 미리 막아야 한다.

로인들은 저항력이 약하기때문에 전염병에 쉽게 걸릴수 있다.

개체위생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⑩ 정신수양을 잘해야 한다.

자기 생활에 애착을 가지고 락천적으로 살아야 한다. 신경질을 내지 말며 건강상태에 맞게 성생활을 적당히 해야 한다.

*　*　*

고향소식

구성남문이 서있는 도시에서



구성남문

선조들이 세워놓은 력사유적들은 사람들에게 당시 사람들이 지녔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건축술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얼마전 우리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구성남문을 보면서 그것을 체험하였다. 고색짙으면서도 건축술이 우수한 남문에 정신이 팔려서 있는데 우리와 동행하던 80고령의 정로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 남문은 고려시기에 세워진것이라우. 우리 구성시의 증견자라고도 볼수 있소. 예로부터 우리 구성은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는데서 성새이고 요충지로 이름이 높았수다. 우리 선조들이 세웠던 구주성의 내성과 외성가운데서도 내성에 위치한 구성남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소. 외적들이 수많이 쳐들어왔지만 단 한번도 돌파당한 일이 없었다오. … 기자선생, 이것만 봐도 우리 구성사람들이 용감하였고 그들이 세운 성시설 또한 대단히 견고했다는것을 잘 알수 있지 않겠소.》

오늘도 굳건히 서서 자기 고장 사람들의 투쟁을 고무해주는듯싶다고 하는 로인의 말을 들으며 시내를 둘러보니 그 의미가 다시금 새롭게 안겨들었다. 민족적정서가 짙게 안겨오는 조선식합각지붕을 한 살림집들과 은덕원, 국수집, 편의봉사시설들, 그와 대치되게 건설된 현대적인 다층살림집지구들과 문화회관, 학교 그리고 만부하로 돌아가는 구성방직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들에서 울려오는 거세찬 동음 등은 로인의 말을 긍정해주는듯싶었고 또 이곳 사람들의 드높은 숨결을 느끼게 하였다.

그것을 우리는 구성시도시건설사업소와 구성방직공장 등에서 보다 강렬하게 느낄수 있었다.

도시건설사업소에 가보니 이곳 사람들은 자기 고장을 남부럽지 않게 꾸려갈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 짧은 기간에 민족적이면서도 현대미를 갖춘 특색있는 도시를 일떠세웠다는 자랑을 펴놓았으며 지금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거리와 살림집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하는 한편 공원들과 유원지들을 보다 훌륭히 꾸려나가고있다고 하였다. 구성방직공장에 들려보니 방직공들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전기가 없으면 수동으로 직기를 돌리면서 천에 대한 전선과 후방의 수요를 보장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오늘도 혁신의 앞장에서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었다.

정말이지 구성사람들이 돋보인다는 우리의 말에 정로인은 말하였다.

《우리 구성시가 오늘과 같이 전변되게 된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소. 우리 수령님들께서는 일찌기 구성땅에 찾아오시여 도시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를 환히 밝혀주시고 그 수행방도를 일일이 가르쳐주시여 오늘 구성땅은 살기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였소. 그러니 평범한 사람들이 혁신자로, 일군으로 성장하고 보람찬 삶도 누리고있는것이 아니겠소.》

그의 말을 감동적으로 들으면서 우리는 방직동 17인민반에서 사는 고금순로인의 집을 찾았다. 80살을 넘긴 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부터 구성방직공장에서 일하였으며 전후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서 직장장으로, 공로자로 한생을 빛나게 산 로인이였다. 그는 우리에게 나라의 은덕에 보답할 생각으로 자기대신 아들을 방직공장에서 일하게 하였는데 오늘은 공장부지배인으로 일을 잘하고있다고 하는것이였다.

이어 우리는 방직동 22인민반에서 사는 백은숙녀성의 집에도 들려보았다. 안주인은 윤택이 도는 자기 집안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자기들은 이번에 부부혁신자라고 하여 새로 집을 받았다고, 나라의 고마운 은덕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사회주의조국을 자기는 천생산으로, 세대주는 공작기계생산으로 받들어나가겠다고 하는것이였다. 알고보니 안주인은 구성방직공장의 직포직장에서, 세대주는 구성공작기계공장 수리직장에서 일하고있었다.

구성시의 어디를 가보나 만리마속도창조열풍속에 들끓고 있었고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자랑스러운 이야기뿐이였다.

정녕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키고 빛내여가려는 이 고장 사람들의 드팀없는 의지를 커다란 공감속에 받아안은 우리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구성방직공장에서



구성닭공장의 일부



평안북도 구성제1중학교에서



일심단결이 안아온 기적



사실 나는 평시에 기적이라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리지 않는다.

그러나 왜서인지 조선에 오면 나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현실앞에서 기적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가군 하는것을 어쩔수 없다.

오늘 조선의 환경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상태이다. 그것은 느닷없이 불시에 닥친것이 아니라 공화국이 창건되기 전부터 오늘까지 미국의 전횡에 의해 강요된 필연적산물이다.

조선과 미국사이에는 70여년이라는 장구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대결구도가 아직도 존재하고있다.

조미대결은 1대 1의 싸움이 아니다. 비교자체가 불가능한 극단의 비대칭대결구도이다.

미국은 조선을 고립압살하기 위하여 딸라와 핵무기를 휘두르며 저들의 추종세력들을 부추기면서 비렬한 침략정책을 일관하게 강구하여왔다. 때문에 그 대결구도를 조선과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듯싶다. 그런데 주목되는것은 미국이 조선과의 대결전에서 단 한번도 자기의 뜻을 실현해본적이 없다는것이다. 도리여 미국이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었다.

1953년 7월 27일에 있은 정전협정이 그 시발점이다. 이렇게 시작된 조선의 승리는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나포(1968년), 승무원전원을 조선동해에 수장시킨 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 《EC-121》 격추(1969년) 그리고 제네바조미기본합의문(1994년), 조미공동성명(2000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2005년) 등의 발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와 첫 수소탄시험성공으로 련련히 이어지고있다.

보다싶이 조선과 미국의 대결에서 승자는 언제나 조선이였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세계도처에 미국의 음모와 책동으로 전쟁의 불길이 휩싸이는 오늘의 환경에서도 조선반도에서는 반세기이상 전쟁이 터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놀래우고있다.

조선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할뿐아니라 자기의 발전궤도를 따라 끝없이 전진하고있다. 기적이란 바로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조선의 기적은 하늘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무기인 일심단결이 있기때문에 이룩된 필연적인 산물이다.

1950년대초 미국이 도발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는 전후의 재더미를 털고 거연히 일떠서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오늘까지 미국과의 대결에서 조선이 승리만을 아로새겨올수 있은 그 힘의 원천은 다름아닌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에 있는것이다.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악과의 싸움에서 승승장구하며 눈부신 래일을 향하여 비약과 전진을 이룩하고있는 조선의 기적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져볼래야 가져볼수 없는 일심단결이, 위대한 사상이 안아온 기적이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일심단결의 위력, 사상의 위력으로 승리만을 아로새겨갈것이다.

나는 세상에 대고 당당히 《조선의 운명은 곧 인류의 미래》라고 말하고싶다.

재미동포 정기렬

조선속담 (순조로움)

- 매도 먼저 맞는것이 낫다

아무래도 해야 할 일이면 남보다 먼저 하는것이 낫다는 말.

- 바람(을) 탄 불길

바람이 일어 불길이 세차게 퍼져나가듯이 일이 거침없이 기세좋게 잘됨을 비겨 이르는 말.

- 언 볼기에 곤장 맞기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한다는 뜻으로 일을 감당하기 쉬울 경우에 이르는 말.

- 메기 잔등에 뱀장어 넘어가듯

거침없이 슬쩍 넘어감을 비겨 이르는 말.

- 엿장사 엿 주무르듯 하다

엿장사가 엿을 늘였다줄였다 제 마음대로 하듯이 무슨 일을 제 마음대로 이랬다저랬다 하는것을 두고 이르는 말.

* * *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올것이다



조국에 와서 중앙동물원과 자연박물관을 돌아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중앙동물원에 가니 지난날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수 없었다.

아가리를 쩍 벌린 백두산호랑이를 형상한 덩지 큰 본관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중앙동물원은 나에게 랑만을 안겨주었다. 숲이 방불한 키 큰 나무들과 그밑에 펼쳐진 파아란 잔디밭, 깨끗한 걸음길과 그사이로 멀리에서 보고도 그것이 어떤 동물사인가를 대뜸 알수 있게 직관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건설된 동물사들, 사람들을 싣고 경쾌하게 달리는 마차들… 볼수록 마음이 흥그러워졌다.

그가운데서도 거부기가 고개를 쳐든 모습을 형상한 파충관은 정말 특색이 있었다. 해당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에 들어선것 같은 느낌이 들게 꾸려진 파충관에서는 뱀과 거부기를 비롯한 파충류들이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서식하고있었고 찾아온 사람들은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해당한 지식을 습득하고있었다.

중앙동물원과 함께 자연박물관이 안겨준 감흥 또한 컸다.

자연박물관의 전시관들가운데서도 우주의 진화과정에 형성된 태양계와 지구에 대한 지식을 생명의 기원과 결부하여 보여주는 우주관이 특색있었다. 그리고 생물계의 진화과정을 보여주는 여러관들에 전시된 각종 표본들과 학술자료들도 그저 무심히 스쳐지나보낼수가 없었다.

자연에 대한 옳바른 리해와 폭넓은 지식을 안겨주는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과 같은 훌륭한 창조물들을 보면서 나는 생각하였다.

우리 조국은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올것이라고.

로씨야 깜챠뜨까주 주분년

훌륭한 조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로동자들



내가 이번에 고국을 방문하고 깊은 인상을 받은것은 로동자들이 훌륭한 로동조건, 생활조건속에서 열심히 일하고있다는 점이다.

나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참관하면서 그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생산현장에서 나는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귀설은 말을 듣게 되였다. 알고보니 그 말에는 로동자들이 다음교대를 위하여 작업준비를 원만히 갖추어놓는다는 뜻이 담겨져있었다.

이곳 로동자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애국심을 발휘하여 더 많은 기대를 다루며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해내고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로동자들은 정해진 작업시간이나 채우면 다다. 누구를 도와준다든가 집단적인 혁신을 한다든가 하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자들은 서로서로 도와주며 집단적혁신을 이룩해나가고있으니 고국에서 만리마속도가 창조되는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자합숙은 그야말로 로동자들의 궁전이였다.

하루일을 마친 로동자들은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선진자료들을 학습하면서 생산실적을 더 높일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고있는가 하면 문화회관에서 예술적기량을 꽃피우기도 하고 진달래원에서 수영도 하고있었다.

참으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통하여 나는 고국의 로동자들이 얼마나 훌륭한 조건에서 열심히 일하고있는가를 잘 알게 되였다.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부회장 신무현



제21차 **김정일**화축전장을 돌아보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고국방문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 재중동포들의 여러 단체 -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국에 체류하는 나날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원들과 중국 단동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조선족기업가협회 성원들은 매번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서 여러 곳을 참관하였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고향집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제21차 **김정일**화축전장을 돌아보면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차상보는 축전이 아름다운 황홀경을 펼쳐놓고있다고 하면서 참으로 위인칭송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가는 조국인민들의 뜨거운 충정의 마음이 있어 절세의 위인의 존함은 영원히 조국과 함께 빛날것이라고 하였다.

광명성절경축 수중체조무용 모범출연을 관람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원인 리원룡은 집체수중체조무용 《우리의 신념》을 보며 난도높은 기교와 특색있는 기술동작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광명한 미래에로 폭풍쳐 내달리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가는 조국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고있는것이라고 하였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돌아본 중국 단동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부회장 김용찬은 새로 건설된 로동자합숙을 보며 로동자들을 위한 이런 희한한 건축물은 로동계급의 세상인 사회주의조선에서만 일떠설수 있다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성원인 김성환은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처음으로 고국을 방문하였다고 하면서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키는 고국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자기도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적은 힘이나마 기여할 마음을 가지게 되였다고 하였다.

방문의 나날 재중동포들은 나날이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며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참관하는 재중동포들





만경대고향집을 돌아보는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대표단





제25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국제휘거축전을 관람하는 재중동포들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안고 전쟁책동 단죄규탄

해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남조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올해에도 다름바 없다.

합동군사연습에는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 추종국가군대를 포함한 방대한 침략무력과 핵항공모함 《칼빈손》호타격단, 핵전략폭격기들, 스텔스전투기들을 비롯한 미제의 각종 핵전략자산들이 사상 최대규모로 총투입되였다.

올해의 합동군사연습의 목적이 《북수뇌부제거》를 위한 《참수작전》과 핵, 로케트기지를 없애버리기 위한 《선제타격》작전에 기본을 둔것으로 하여 사태는 더욱 엄중하였다.

민족의 머리우에 기어이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전쟁책동은 조국인민들뿐아니라 해외동포들의 치솟는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침략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대규모북침핵전쟁연습을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포악무도한 침략전쟁소동으로 락인하고 이를 치솟는 민족적분노속에 준렬히 단죄규탄한다고 하면서 공화국에는 소형화, 정밀화, 다종화된 핵탄두들이 실전배비되여있으며 침략자들에 대한 멸적의 보복의지를 안고 최고사령관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천만군민의 정의의 대부대가 고도의 격동상태에 있다고 하였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에서는 남조선인민들과 전체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남조선에서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이 야합하여 벌리는 모든 군사연습들은 불달린 화약통을 안고 춤추는 미친짓과 같으며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그 어떤 좋은것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끼르기즈스딴고려인통일련합회가 발표한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이번 북침전쟁연습의 목적을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는데 있다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 공화국이 이미 밝힌바와 같이 조선의 핵시험은 조미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조건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조치의 일환이며 세계평화의 담보로 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해치려는 북침핵전쟁소동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유럽지역본부는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조선반도의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는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해마다 벌려놓고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때문이라고 규탄하였다. 성명은 북, 남, 해외동포들은 조국땅이 핵전쟁으로 불모지가 되는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미국의 트럼프는 박근혜를 탄핵시킨 남조선인민들의 초불이 어디로 향하고있는지 똑바로 알고 북침전쟁연습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재미본부도 중앙위원회총회를 가지고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고 민족의 새날을 열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채택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합동군사연습으로 북을 억누르고 파멸시켜보려고 기도하였지만 그와 반대로 북은 더욱 공고해졌고 인민생활향상에서 눈부신 전진을 이룩하고있다고 밝혔다.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은 일본에 있는 미국대사관과 남조선괴뢰대사관앞에서 침략적인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항의행동을 벌렸다. 항의행동에는 《재일한국청년동맹》과 《재일한국민주녀성회》, 《재일한국인학생협의회》 성원들도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한미합동군사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를 중지하라!》, 《미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투쟁을 전개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전체 조선민족의 멸적의 신념과 의지를 똑똑히 알고 더 이상 무모한 침략전쟁책동에 매여달리지 말아야 하며 허황한 망상밑에 시간을 랑비하지 말고 옳바른 선택을 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현강

고구려의 건축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첫 봉건국가였으며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고구려는 건축도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켜 동방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높은 건축술을 지니고있던 고구려인민들은 건축물을 견고할뿐만아니라 예술적으로도 웅장하고 조화로우며 아름답게 건설하였다.

고구려건축의 발전면모는 우선 왕궁, 사원, 살림집 등 목조건축유적들에서 잘 나타난다.

다른 나라의 력사책에 고구려에서 《궁실을 잘 지었다.》고 기록되여있는바와 같이 고구려에서는 궁전을 웅장화려하게 건설하였다.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에 있는 5~6세기 고구려왕궁인 안학궁유적을 보더라도 총부지면적이 약 38만㎡이고 총건평은 3만 1 458㎡나 된다. 거기에는 정면너비가 거의 100m에 가까운 궁전들과 그것들을 련결하는 회랑, 정원이 질서정연하게 들어앉아있었다. 고구려의 건축가들은 안학궁의 건축물자체를 웅장하게 만들었을뿐아니라 대조수법, 시각에서 일어나는 착각을 리용하는 수법 등 여러가지 수법을 능숙하게 리용하여 왕궁이 실제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금강사와 정릉사 등 고구려의 1탑3금당식사원건축을 보면 화려하면서도 단정하고 안정감이 나도록 건설되였다는것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다.

고구려의 건축가들은 일정한 기준크기(레컨대 탑의 한변의 길이)를 설정하고 탑에서 문려, 동, 서금당, 중금당까지의 거리가 그의 배수가 되게 하였다. 그리고 금당을 비롯한 주요건물 등은 기준크기와 1:2, 3:5, 1:$\sqrt{2}$(대각선전개법에 의한 이 비례를 일명 금강비례라고 한다.) 등 일정한 비례를 이루게 함으로써 건축물들사이 조화를 최대한으로 잘 보장하였다. 탑들도 매우 크면서도 조화롭게 건설되였는데 금강사탑은 8각형으로 된 나무탑으로서 너비가 24.5m이고 높이는 62.5m에 달하였다.

고구려의 높은 목조건축술은 건물의 매 구성요소에서도 잘 나타난다.

고구려건축가들은 배부른기둥을 도입하여 기둥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또 무거운 지붕을 힘있게 받들고있다는 느낌을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둥우에 여러층의 두공을 짜올려 해빛을 잘 받아들이고 통풍이 잘되게 하는 동시에 건물의 높이를 크게 하고 여러가지 장식적변화를 줌으로써 건축미를 한층 돋굴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건축물의 미관을 돋구고 부식을 막기 위하여 여러가지 색갈로 단청장식을 하였으며 목조건물을 더 안정되고 장중하게 또는 경쾌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지붕의 형태에 많은 관심을 돌리였다.

고구려건축의 발전면모는 또한 석조건축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성곽은 고구려의 발전된 석조건축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고구려는 《성곽의 나라》로 불리울만큼 전국각지에 1 000여개나 되는 수많은 성들이 조밀하게 배치되여있었다.

특히 고구려산성은 방어력이 매우 강한 우수한 축조물로서 침략자들을 전률케 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고구려성곽건축에서 도성, 읍성은 산성과 함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고구려는 첫 시기에는 졸본성, 국내성, 평양성(대성산일대)과 같이 평지에 궁성을 쌓고 그 주변의 가장 가까운 곳에 산성을 쌓는 방법으로 수도를 비롯한 도시의 방어력을 높이였다. 그후에는 새 평양성인 장안성과 같이 평지성과 산성을 결합한 평산성을 쌓아 도시중심부를 완전히 둘러막음으로써 도시의 방어력을 대단히 높이였다.

고구려사람들은 산성, 도성, 읍성 등 여러가지 성곽의 성벽과 그 부대시설들을 견고할뿐아니라 보기 좋고 주위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면서도 적을 위압할수 있도록 위엄있고 장중하게 건설하는데도 관심을 돌리였다.

태왕릉, 장군무덤 등 대규모의 돌각담무덤(계단돌칸무덤)들과 100여기에 달하는 벽화무덤을 비롯한 수많은 돌칸흙무덤들도 고구려에서 석조건축술이 높은 수준에서 발전하였음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밖에 고구려건축의 발전면모는 도시건축형성 등 기타 여러 측면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고구려의 건축은 삼국시기 동족의 나라들의 건축발전은 물론 이웃나라 특히 일본과 후세 우리 나라 봉건국가들의 건축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였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명일

《흥겨운 농악에 맞추어 즐겁게 춤추세!》

우리가 농악무에 대한 글을 쓸 결심을 하게 된것은 지난해 가을부터였습니다.

세계의 명산 금강산을 찾아보기 위해 조국을 방문한 중국 흑룡강성 연수현의 동포로인들과 함께 취재길에 올랐던 우리는 대대로 농사를 지었다는 한 로인에게서 농악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듣게 된것입니다.

해방전 그의 아버지는 압록강을 건너 타향으로 가기 전까지 조국의 황해도지방의 연백벌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우리 인민을 《황국신민화》하려고 《신사참배》를 비롯하여 《천황》숭배의 명목으로 각종 행사놀음을 벌리다 못해 일본말사용,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옷차림, 식생활풍습과 민속놀이, 가무 등을 말살해버리려고 책동하였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연백벌사람들은 벌에서 일하다가 쉴참이면 우리 춤을 추군 하였는데 할아버지는 고향마을 농악대의 상쇠였고 아버지는 장고잡이로 그 아근에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농악무는 해방후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행복한 삶의 터전에서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민속예술로 되여 오늘까지 계승발전되고있으며 조국에서뿐아니라 조선사람들이 살고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널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일동포들은 농악무의 진행을 민족의 넋을 지켜나가는 대중적인 사업으로 여기면서 적극 장려하고있습니다. 중국의 조선족자치주인 연변을 비롯하여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은 농촌의 향마다 구락부와 회관을 꾸리고 대중적으로 농악무를 비롯한 조선민속무용을 배우고 출연도 하고있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조선의 농악무에 대한 지식을 가져보는것이 어떻습니까.

농악무는 북, 징, 꽹과리, 장고, 소고와 같은 여러가지 타악기들을 흥겹게 치고 새납을 경쾌하게 불며 상모를 재치있게 돌리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조선의 향토적인 민속예술로서 일명 농악놀이, 농부놀이라고도 합니다.



농악무의 고유한 특징은 음악과 무용, 극, 재주 등 여러가지 예술형식들이 결합되여있는 종합적인 민속예술형식이라는데 있습니다.

농악무는 여러가지 악기를 가진 인원들이 농악도 연주하고 춤도 추어야 하는것만큼 새납과 그리고 징, 꽹과리, 북, 장고와 같은 타악기를 가진 풍물잡이들과 소고를 치고 상모를 돌리면서 춤을 추는 춤군, 신호수, 기수 등 5~7명으로부터 수십명으로까지 편성할수 있습니다.

농악대에는 상쇠를 지휘자로 하여 잡이, 춤군, 잡색과 같은 기본성원들과 신호수, 기수 등 보조성원들이 있습니다.

상쇠라는 말은 풍물잡이들의 선두라는 뜻으로써 상쇠는 농악대의 인원선발, 춤가락의 안무와 장면구성, 장단가락의 창조와 숙련, 농악무의 의상과 소도구, 기재준비 등을 맡아합니다.

농악무라고 하면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이 전국적으로 엄지손가락에 꼽히는데 올해 70살인 관리위원장 김명연은 젊은이들도 무색케 하는 농악대의 장고잡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수수천년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어오면서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온 우리 민족은 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통일된 조국땅에 행복과 기쁨의 농악춤판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이 통일의 광장에 농악무의 흥겨운 춤판을 펼치게 될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웨치고싶습니다.

《흥겨운 농악에 맞추어 즐겁게 춤추세!》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애국명장 연개소문

연개소문(?-666년)은 어려서부터 씩씩하고 용감하였으며 무술에 능하였다.

그는 나라의 최고벼슬인 막리지로 있은 기간 강경한 대외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통치체제를 정비하여 고구려봉건국가의 국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었다.

당시 외세는 고구려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사신》을 침투시켜 군사기밀과 지리를 탐지하기까지 하였다.

연개소문은 외적의 대규모침공에 대처할수 있게 식량을 저축하고 무기를 갖추면서 종전부터 추진시켜오던 천리장성을 쌓는 사업을 다그치게 하였다.

그리고 료하계선의 성들을 수리보강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준비를 갖추어나갔다.

연개소문은 645년 4월 외적이 수십만의 륙군과 수군으로 고구려에 침공하자 고구려군대와 인민을 반침략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다. 고구려군민들은 개모성, 비사성, 료동성 등 료동지방의 여러 성들에서 치렬한 전투를 벌리였다. 안시성안의 군민들은 하루에도 여러차례 집요하게 달려드는 적들을 보기 좋게 물리쳤다. 적들은 60일간에 걸쳐 흙산을 쌓고 성벽을 넘어오려고 발악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외적은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되자 패잔병들을 긁어모아가지고 도망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당시 침략군의 우두머리는 도망치면서 연개소문에게 좋은 갑옷과 값진 비단천을 선물로 바치였다.

연개소문은 647년, 648년에 계속된 외래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도 고구려군민을 옳게 조직동원하였으며 그후에도 집요하게 달려드는 외적의 침공을 모두 격파하고 승리하였다. 특히 661년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여 고구려를 침략하려고 접어들었을 때에도 능숙한 전법으로 적들을 물리쳤다.

당시 용맹스러운 연개소문한테 얼마나 된타격을 받군 하였던지 고구려를 침략한 나라에서는 《연개소문이 온다.》고 하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뚝 그쳤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있다.

* * *

조국의 천연기념물 (6)



관모봉큰곰살이터

함경북도에는 특이한 자연지리적조건에 적응하여 사는 희귀한 동물들과 물고기, 조개와 나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관모봉큰곰, 마양흰족제비, 마양열묵어, 보촌조개살이터의 짜리조개와 복조개 그리고 연주노랑나비를 들수 있습니다.

관모봉큰곰은 함경북도 연사군 삼포리 등연동과 함경산줄기의 관모봉(2 540m), 도정산(2 198m)일대에서 살고있습니다. 큰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물의 하나이며 산짐승들가운데서 제일 큰 동물중의 하나입니다.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드문 짐승이며 점차 그 수가 줄어드는 희귀한 동물로서 현재 국제보호대상으로 되고있습니다. 지금 큰곰이 살고있는 대표적인 살이터는 관모봉일대이므로 이 지역의 큰곰을 적극 보호증식하고있습니다.

마양흰족제비는 함경북도 무산군 마양로동자구를 비롯하여 무산군일대의 산속에 퍼져있습니다. 우리 나라 높은 지대에서 사는 대표적인 족제비의 하나이며 철에 따라 털색이 변하고 특이한 생활습성을 가지고있습니다. 해발높이 1 000m이상되는 높은 산의 돌구멍, 나무뿌리밑둥 등에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마양흰족제비는 고기먹는 짐승들가운데서 제일 작은 동물의 하나로서 몸길이는 15~17㎝, 꼬리는 2. 7~3. 4㎝로서 매우 짧습니다. 겨울에는 온몸이 흰색털로, 여름에는 몸아래면과 앞발, 앞다리의 안쪽과 턱아래면이 흰색털로 덮이고 나머지부분은 밤색털로 덮입니다. 눈, 귀, 코가 발달되고 동작이 매우 빠르며 밤낮으로 활동하는데 산간지대 마을의 창고에 나타나 쥐를 잡아먹으므로 《쥐먹는 쥐》라고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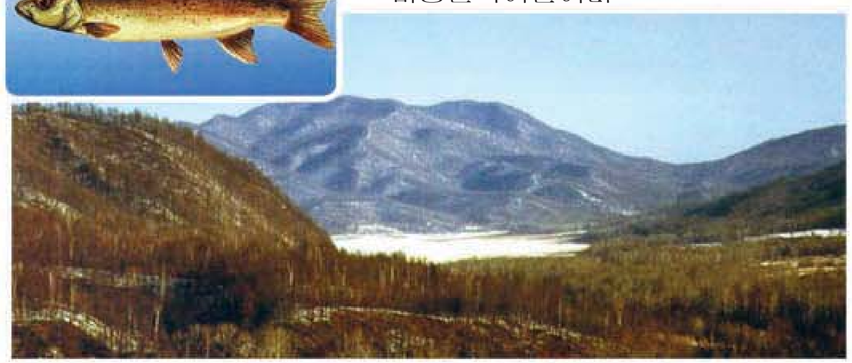
마양흰족제비



마양열묵어가 퍼져있는 곳 역시 함경북도 무산군 마양로동자구입니다. 마양열묵어는 마양저수지와 그곳으로 흘러드는 마양천(성천수의 상류)에 퍼져 살고있습니다. 마양열묵어는 저수지에서 겨울을 나고 4월 중순경부터는 마양천을 거슬러 상류에까지 올라가 알쓸이를 합니다.

마양열묵어는 고산지대의 강하천과 저수지에 퍼져 사는 찬물성물고기로서 양어와 생태연구에 의의가 있는것으로 하여 적극 보호증식되고있습니다.





마양열묵어살이터

보촌조개살이터는 함경북도 명천군 보촌리앞바다에 있습니다. 이곳이 천연기념물로 선정된것은 이곳에 보존대상으로 되고있는 짜리조개와 복조개가 서식하고있기때문입니다.

닭알모양의 짜리조개는 섭조개와 함께 여러가지 바다풀이 많은 곳에서 삽니다.

복조개는 바다물깊이 1m되는 곳의 바위와 돌에 붙어사는데 생복과 해삼이 많은 곳을 좋아합니다. 맑은 바다물에서 사는 이 조개는 물속에서 움직일 때에는 색갈이 빨간색으로 변하므로 마치 바다속의 보물과도 같이 보입니다.

연주노랑나비는 함경북도 회령시일대와 연사군일대에 집중적으로 퍼져 살고있습니다. 이 일대의 산림에는 이깔나무, 전나무를 비롯한 나무들이 울창하고 산나물과 산과일, 약초가 많습니다. 그런것으로 하여 연주노랑나비가 서식하는데 좋은 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주고있습니다.

연주노랑나비의 날개편너비는 55~65mm입니다. 암컷의 날개는 감빛붉은색이고 앞날개의 끝으로부터 바깥가장자리는 검은밤색을 띠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 몇개의 노란색얼룩무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뒤날개는 좀 어두운 색이고 바깥가장자리는 검은밤색을 띠며 그가운데 노란색무늬가 있습니다.

연주노랑나비는 한해에 한번 번식하는데 6월 상, 중순경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제일 많이 나타나는 시기는 7월 상, 중순경입니다.

나비는 산골짜기의 시내물가나 건조한 풀판우를 재빨리 날아다닙니다.

이 나비는 관상적 및 학술적의의가 있는것으로 하여 적극 보호되고있습니다.

조선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연구사 김지향

야 화

녀인들을 놀래운 부인

리정구(1564년-1635년)의 안해는 판서 권극지의 딸이다.

그의 남편인 리정구는 조선봉건왕조시기 호조참판, 우의정으로 있었고 백주와 현주 두 아들도 모두 높은 벼슬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집안살림을 매우 검소하게 하였다. 마음이 바르고 행실이 착한 그는 언제 한번 몸에 화려한 옷을 입은적이 없었다고 한다.

언제인가 어느 공주네 집에서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례식이 있을 때였다.

임금이 조정관리들의 부인들은 모두 공주네 잔치에 참가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사대부집 녀인들이 저마다 화려한 옷들을 차려입고 모였다. 무늬있는 비단에 진주를 박아지은 옷들을 자랑이나 하듯 떨쳐입고 모였으니 눈이 부실 지경이였다.

맨 나중에 가마 한채가 들어오더니 베저고리치마차림의 단정한 한 로파가 지팽이를 짚고 내렸다. 대사집을 찾은 녀인들모두가 주인과 공주가 헤덤비며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마당으로 달려내려가 맞이하는것을 보고 의아해하였다.

《어느 댁 부인일가?》

주인이 로파를 맞이하여 웃자리에 앉히고 매우 공경스럽게 례의를 표하자 부인들의 의아함은 더욱 커졌다. 음식대접을 받은 로파가 먼저 일어나 그만 돌아가겠노라고 하자 주인은 아직 해질녘까지는 멀었다면서 더 앉아있으라고 만류하였다.

《집의 대감께서도 그래 아들들도 집에 들어올 때가 되였으니 이 늙은게 어서 가서 저녁밥을 지어야지요.》

그러며 로파가 일어서자 집주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며 말하였다.

《아니 바깥주인께서야 우의정이시고 아들들도 당상관에 승지로 당당한 대가집안주인께서 어찌 그 나이에 밥까지 지으실고…》

그제서야 모였던 녀인들은 그가 리정구의 부인이라는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　　*　　*

새로 발굴된 소금생산유적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소금이 언제부터 생산되였는가 하는것은 누구나 관심하는 문제의 하나이다. 하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속에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연구사들은 주체103(2014)년에 고구려시기의 소금생산유적을 발굴고증한데 이어 주체105(2016)년에 고구려에 의해 통합되였던 조선후국의 소금생산유적을 처음으로 발굴하고 고증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연구집단이 유적을 발견한 곳은 남포시 온천군 원읍로동자구 소재지에서 북동쪽으로 약 3㎞정도 떨어진 논판이였다. 논판밑에서 소금생산과 관련된 5기의 돌시설물들이 나왔는데 연구결과 조선후국시기의것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였다.

소금생산과 관련된 시설물은 땅겉면으로부터 120㎝깊이에서 발견되였다. 발견당시 시설물은 돌로 쌓은 원형뚝모양으로서 웃부분은 높은 열을 받아 굳어져있고 안쪽에는 두터운 재층이 있었으며 남쪽방향으로는 불을 때던 아궁이흔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원형의 돌시설물은 당시 가마를 걸고 불을 때던 가마터시설이였다고 볼수 있다.

그후 연구집단은 가마터시설로부터 동남쪽으로 얼마간 떨어진 곳에서 타원형의 물웅뎅이시설을 발견하였는데 그 밑부분에도 검은 재층이 두텁게 깔려있었다. 그리고 가마터시설의 주변에서는 검은색, 회백색, 갈색의 질그릇쪼각들과 주머니식쇠도끼를 비롯한 여러점의 쇠쪼각들도 발견되였다.

질그릇쪼각들은 지난 시기 고조선유민들이 남긴 유적들에서 많이 드러난것들과 일치하였으며 특히 회백색단지쪼각은 전형적인 조선후국시기의 유물이였다. 주머니식쇠도끼 역시 주머니부분을 단조하여 접는 방법으로 만든것으로서 2세기경부터 쓰이던 유물이였다. 따라서 새로 발굴된 소금생산유적의 년대는 1~2세기경으로 볼수 있으며 이 시기에 온천일대에 조선후국이 존재하였다는데 대해 확증하였다.

조선후국은 A. D. 3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조선일대에 세워져 2세기 말경까지 존재하다가 고구려에 통합된 조선민족의 소국이였다.

고구려에 통합된 조선후국의 소금생산유적이 이번에 새롭게 발굴됨으로써 조선력사에서 4세기경의 고구려소금생산유적이 처음으로 발굴고증된데 이어 그보다 더 이른시기의 소금생산기술이 밝혀지게 되였다. 이와 함께 조선민족이 1~2세기에 소금생산기술을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키고 그것이 고구려에 의해 보다 발전하게 되였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으며 당시의 소금생산기술의 발전수준과 독자성을 뚜렷이 하였을뿐아니라 조선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일수 있게 하였다.

실지 이번에 발굴된 조선후국의 소금생산유적과 당시 이웃나라들의 소금생산과 관련한 고고학적인 자료를 대비하여보면 조선후국문화의 독자성과 높은 발전수준을 잘 알수 있다. 발굴된 소금생산유적들의 소금생산공정과 시설들은 이웃나라들과 뚜렷한 차이를 가지며 소금생산기술도 당시로서는 높은 경지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새로 발굴된 조선후국의 소금생산유적은 오늘 민족유산의 보물고를 보다 풍부히 하고있으며 온 겨레에게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조선중앙통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7. 4공동성명

온 겨레가 조국통일3대원칙을 받아안고 격정에 넘쳐있던 때로부터 어느덧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생각할수록 가슴뜨거워지는 1970년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기 위하여 내놓으신 폭넓은 북남협상방침에 따라 북남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이 시작된것은 주체60(1971)년 9월부터였다. 조국통일에 대한 전체 조선민족의 열의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북과 남의 대화가 시작된 변화된 정세는 대화의 폭을 넓히고 조국통일의 실천적방도를 진지하게 토의하며 대화와 협상의 기초로 되는 동시에 통일의 넓은 길을 밝혀줄 새로운 강령을 제시할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정세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시여 주체61(1972)년 5월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측 대표와 하신 담화에서 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되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하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나라의 통일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을 무력행사에 의거함이 없이 평화적으로 실현하며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밝히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정견, 상반되는 제도를 가진 북과 남이 공동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하는 민족의 공동강령이며 북과 남이 대화와 협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지도적원칙이였다.

그 지도적원칙을 담아 북과 남은 주체61(1972)년 7월 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은 비록 조약이나 협정은 아니였지만 동족사이에 합의서약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언한 문건으로서 나라의 통일을 일일천추로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에게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강령을 안겨주었다.

나라가 분렬되여 처음으로 되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을 마련한 력사적인 7. 4공동성명의 발표는 온 민족을 격동시키고 삼천리강토를 조국통일의 새로운 열정으로 세차게 들끓게 하였다.

끝없는 감격속에 7. 4공동성명에 접한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군중집회들을 열고 그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으며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도 련이어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7. 4공동성명을 《민족사적이며 세계사적인 송가》로 열렬히 지지환영하면서 이 위대한 현실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을 드리였다.

남조선의 한 신문은 《아침출근길에 동아일보사 게시판에는… 활짝 웃고계시는 **김일성**수상의 초상이 모든 행인들의 발걸음을 못박고있었다. 그들은 꿈인가 하고 착각, 거듭 눈을 씻고 꿈인가, 생시인가 확인, 막혔던 가슴과 덩어리진 한이 풀리는 우렁찬 력사의 쇠바퀴소리, 백두산련봉이 지호지간에서 손저어 부르는것만 같은 벼락같은 환희가 혈관을 질주하기 시작한다.》라고 쓰기까지 하였다.

7. 4공동성명의 발표는 해외동포들속에서도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으며 국제적으로도 전례없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45년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공동성명의 기본진수인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이 나날에 조국통일3대원칙의 진수가 그대로 반영된 우리 민족끼리의 6. 15통일시대가 열리고 북남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 접촉과 교류가 활성화되는 등 온 겨레를 기쁘게 하는 민족공동의 소중한 열매들이 마련되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정녕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력사적인 7. 4공동성명의 발표는 하나된 조국땅에서 평화번영을 누려나가려는 전체 조선민족에게 커다란 환희와 격정을 안겨주고 조국통일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순조롭게 해결할수 있게 하는 민족공동의 통일지침을 마련한 력사적인 사변으로 된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차광혁

개성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8)

- 개성첨성대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유적들을 찾는 우리의 발걸음은 개성첨성대로 향하였습니다.

개성첨성대는 개성시 송악동에 있는 만월대 고려왕궁터의 서쪽부분에 자리잡고있습니다.

개성첨성대에는 오늘 천문관측기구는 없고 그것을 올려놓았던 축대만이 남아있습니다.

방형평면으로 된 축대는 기둥돌들과 그우에 상처럼 짜놓은 대돌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축대의 높이는 2. 8m이며 그 한변의 길이는 2. 6m입니다.

축대는 주추돌우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우에 네모나게 다듬은 대돌로 틀을 짠 다음 틀사이에 판돌을 깔아 만들었습니다. 축대의 네면은 첨성대의 중요한 방위기준이 되도록 동, 서, 남, 북방향과 일치하게 하였습니다.

축대는 부재들의 다듬새가 치밀하고 그 구조가 견고합니다. 특히 대돌과 판돌은 서로 빈틈없이 맞물려져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나비사개이음방법을 석조건축구조에 도입한것입니다.

축대우에는 모서리마다 큰 구멍이 있고 그밖에도 여러곳에 작은 구멍들이 뚫려져있습니다. 이 구멍들은 관측시설을 고정시켰던 자리인것같습니다.

개성첨성대는 우리 나라에서 천문현상에 대한 관측사업을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진행하여왔다는것과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던 고려천문학의 발전모습을 실물로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옳바른 문화유산보존정책에 의하여 개성첨성대는 잘 보존되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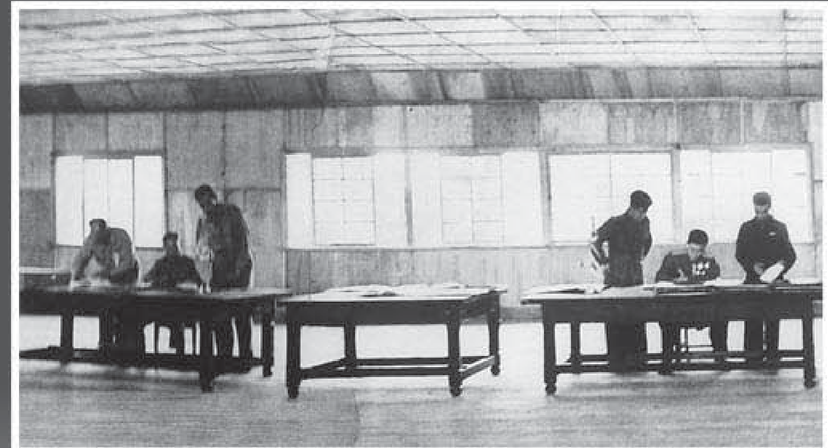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신애

강대성의 신화는 깨여졌다



신화는 깨여지고 말았다.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던것처럼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아니였다.

미국무장관 마샬



정전협정조인식



솔직히 말하면 조선전쟁은 커다란 군사적재난이며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만난 적과 싸운 잘못한 전쟁이였다.

미합동참모본부 의장 브랫들리

조선전쟁에서 미국장성들의 말로



식량만 축내는 아이젠하워



황천객이 된 워커



포로가 된 띤



미륙군 참모총장 콜린즈



황황히 쫓겨가는 맥아더



맥이 빠져 논두렁에 주저앉은 릿지웨이

상식

거문도사건

거문도사건은 1885년-1887년에 걸쳐 영국침략자들이 조선남해에 있는 전라남도의 거문도를 불법점령하였던 사건이다.

일찍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의 마수를 뻗친 유미침략자들은 거문도를 군사침략기지로 만들기 위한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영국침략자들은 이미 1880년대에 거문도에 군사기지를 두려고 획책하였다. 조선봉건국가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1883년 10월에 예속적인 《조영수호조약》을 강압체결하고 조선침략을 적극화한 영국침략자들은 1885년 3월(음력) 저들의 극동함대를 끌고와서 거문도를 강점하였다. 《아가멤논》호를 비롯한 9척의 군함과 상선 2척을 끌고 거문도에 기여든 영국함대 사령관 하밀톤은 제 이름을 따서 섬의 이름을 《하밀톤》이라고 고쳤으며 영구강점을 꾀하였다. 영국침략자들은 거문도를 저들의 아시아침략의 군사기지로, 아시아에 대한 세력권쟁탈을 둘러싸고 대립되여있던 짜리로씨야 및 청나라와의 대결에서 군사적거점으로 리용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완강한 투쟁에 부닥친 영국침략자들은 영구강점의 야망을 실현하지 못한채 1887년 2월 거문도에서 쫓겨나고말았다.

대미추종의 참혹한 후과

남조선이 미국의 《싸드》를 받아들인 대가를 톡톡히 입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영국 로이터통신, 미국 《워싱톤 타임스》와 각각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싸드》는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한것이기때문에 그와 관련한 10억 US$의 비용을 《남조선이 지불하는것이 적절》하다고 떠들었다.

《싸드》배치는 미국이 떠드는것처럼 남조선의 《안보》를 위한것이 아니다. 《싸드》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패권전략실현을 위한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의 한 고리라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철면피하게 남조선의 《안보》를 지켜준다며 《싸드》배치를 강요하였고 그 비용을 전부 남조선이 내야 한다고 우겨대고있다.

미국이 《싸드》를 성주골프장에 기습배치한데 이어 막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강박하고있는것은 남조선에 대한 무시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고있다.

트럼프의 오만한 발언이 나가자 남조선은 벌둥지를 쑤셔놓은 격이 되였다.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긴급고위정책간담회를 연다, 비상대책회의를 한다 하면서 새 미행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분주탕을 피워댔다. 한편 《아직 정식 통보받은것은 없다.》느니, 《기존합의를 지킬것으로 본다.》느니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궁지에 몰린 저들의 가련한 처지를 가리우고 남조선 각계의 비난여론을 잠재우려고 진땀을 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보수세력이 《싸드》배치비용과 관련한 저들의 처지를 생각해달라고 루차 간청하였지만 미국은 랭정하기 그지없었다. 트럼프는 자기 주장을 재차 강조하였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기 싫다.》고 하였다.

지금껏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 곧잘 떠들어대며 상전의 그 어떤 요구도 다 들어준 남조선에 있어서 마른 하늘의 벼락이 아닐수 없다. 보수세력이 트럼프행정부가 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남조선미국《동맹》을 《우선순위》에 두고있다고 광고하였지만 현실은 너무도 판이하다.

친미보수세력의 대미추종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되였다.

《싸드》를 배치한것으로 하여 남조선은 주변나라들로부터도 경제제재를 당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싸드》로 하여 남조선은 더 큰 안보위협에 시달리게 되였다.

조선반도전쟁위험이 더욱 높아진것은 두말할것없고 레이다반경이 수천km에 달하는 《싸드》때문에 남조선은 주변나라들의 미싸일타격과녁이 되게 되였다. 주변나라들은 《싸드》가 자기들의 전략적안정을 심히 위협하고있다고 하면서 군사적대응책도 불사할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만약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충돌을 할 경우 《싸드》가 배치된 남조선이 주변나라들의 1차적인 군사적타격대상이 된다는것을 천명한것이나 같다. 그러한 재난의 《싸드》를 끌어들인것만으로도 남조선인민들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는데 이제는 막대한 비용까지 미국에 섬겨바쳐야 하는 신세가 된것이다.

결국 《싸드》때문에 남조선이 당하는 피해와 재난은 이루 헤아릴수 없게 되였다. 남조선을 그러한 처참한 신세로 만들어놓은것은 바로 친미에 쩌들대로 쩌든 보수세력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의 돌격대가 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희세의 매국역적들에게 무서운 징벌의 철추를 안겨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진룡진

미국과 괴뢰당국의 《싸드》배치강행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군사비증강책동에 숨겨진 잔꾀

일본의 군사비증강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다. 그것은 최근 5년째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5조 1억 3 000만¥을 군사비로 탕진하였는가 하면 올해에는 보다 많은 5조 1 000억¥을 군사비로 할당하였다.

이에 대해 얼마전 중국의 신화통신은 《일본군사비의 3대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해마다 불어나는 일본의 군사비예산에는 3가지 비밀이 있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통신은 그중의 하나가 바로 《보충예산》의 명목으로 년간 실제적인 군사비액수보다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있는것이라고 까밝혔다.

올해 군사비도 이런 식으로 대폭 늘인 일본이다. 그러면서 일본이 매번 내세우는 명목은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한다는것이고 또 자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것이라고 잔꾀를 부리고있는것이다. 참으로 안팎이 다른 일본특유의 간사하고 교활한 술책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이에 속아넘어갈 국제사회계가 아니다.

이미 일본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손꼽히는 전투무력을 가지고있다. 그것이 성차지 않아 군사비를 최대규모로 늘이고있는데 대해 국제사회계는 일본이 해외침략을 위한것이라고밖에는 달리 볼수 없다고 인정하고있다.

일본이 입버릇처럼 자국의 안전과 평화를 그 누가 《위협》한다고 외워대는데 현시기 섬나라를 《위협》하는 나라는 없으며 있다면 매일, 매 시각 닥쳐오는 생활상고통으로 하여 일본국민들자체가 자살과 범죄 등으로 자국내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고있는것이다. 실지로 일본에서는 한해에도 수만명의 사람들이 생활난에 허덕이던 끝에 비참한 자살참극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 청소년들과 중장년은 물론하고 로인들까지도 폭력배, 불량배가 되여 각종 범죄사건으로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파괴하고있는 형편이다.

사실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국내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국민들의 생활상고통을 막기 위한 국가예산지출이 아니라 군사비증강책동에 미쳐날뛰며 그것을 은페시키기 위한 어리석은 잔꾀를 부리는것은 일본국민들뿐만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며 도전이 아닐수 없다.

기고만장해질대로 해진 일본은 실지 옛 시대를 꿈꾸며 과거의 침략력사를 되풀이하기 위해 미친듯이 돈을 쏟아붓고있다. 하여 이미 해외침략실현에 장애로 되는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버린 일본《자위대》는 공격형의 침략무력으로 완전히 개편되여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기동타격력과 작전능력이 비상히 높아졌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지난 세기 일제가 《대동아공영권》을 떠들며 아시아를 메주밟듯 하던 그 시절을 재현하겠다는것과 같은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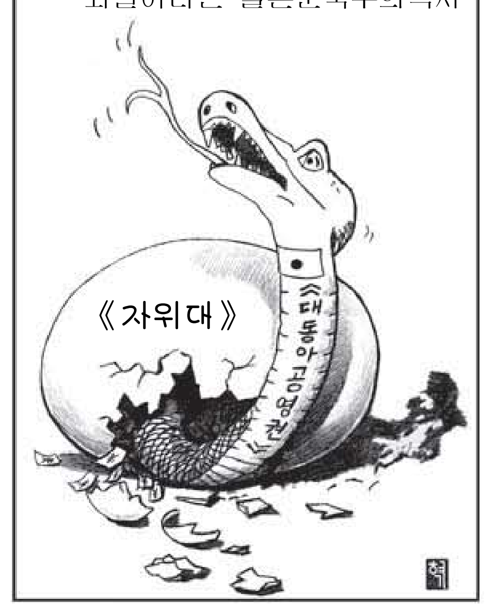
일본의 군사비증강책동에 숨겨진 잔꾀의 다른 측면은 힘을 배가로 키워 어느때 가서든 자기 나라에 원자탄피해를 입힌 미국을 복수함으로써 묵은 한을 풀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간특한 일본은 지금은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려 하고있지만 때가 되면 미국을 복수하기 위해 피를 물고 날뛸것은 불보듯 명백한것이다. 진주만사건이 이것을 교훈으로 새겨주고있다.

오늘 일본은 그 무엇보다도 공화국을 저들의 첫째가는 침략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군사비증강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하지만 일본은 언제인가 전 일본군병사들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아시아인민들에게 커다란 참해를 입혔기때문에 파멸했다고 고백한데 대하여 상기해보아야 한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침략자들에게는 그 누구도 선행을 베풀지 않았다.

본사기자

되살아나는 일본군국주의독사



《인권재판관》의 변덕

원래부터 미국은 유엔인권리사회에 있을 자격을 상실한 전형적인 인권범죄국이다. 미국은 폭력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는 물론 인권유린행위가 가장 우심한 나라이다. 뿐만아니라 해외에서도 고문과 학대, 탄압과 학살, 도청과 랍치 등 인권유린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여 세계적인 비난을 받아왔다. 그때문에 2006년 유엔인권리사회가 설립될 당시에 저들이 국제사회의 충분한 지지를 받을수 없다고 타산한 미국은 기구가입을 포기하고 대신 다른 나라들의 성원국자격을 시비질하며 못되게 놀아댔었다.

그러던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몰리우는것 같은 생각이 들자 불순한 정치적목적실현을 위해 몇해후에는 기를 쓰고 기구에 들어갔다.

그런데 지난 3월 미국은 갑작스레 유엔인권리사회에서 탈퇴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국제사회는 도저히 가늠이 가지 않아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그것은 국제무대에서 그 누가 인정도 하지 않는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며 여기저기에 코를 들이밀기 좋아하는 미국이 어떻게 되여 유엔인권리사회에서의 탈퇴소리를 하고있는가 하는것이였다.

솔직히 말하여 지난 기간 미국은 유엔인권리사회를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몰아대는 무대로 삼아왔다. 따라서 이 기구는 실지 미국의 장단에 놀아난 일이 적지 않았다. 이런것을 놓고 볼 때 미국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는것은 십분 리해가 가는 일이다.

하다면 미국이 무엇때문에 유엔인권리사회에서의 탈퇴를 운운하며 부산을 떠는가 하는것이다.

그 리유를 들어보면 정말 너절하기 짝이 없다.

그것은 기구에 《인권침해국》들이 적지 않게 들어가 있고 유엔인권리사회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장소로 리용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이라는것이다.

사실 그것은 저들이 늘 돌격대로 써먹군 하는 하수인이 국제무대에서 몰리우는것이 하도 가긍하여 취하는 동정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것만은 아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의 령토에서 감행하고있는 인권유린만행은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의 대상이 되여왔다. 미국의 배후조종에 따라 놀아나고있는 유엔인권리사회도 국제사회의 항의를 더는 외면할수 없어 이스라엘이 인도주의에 관한 국제법들을 철저히 리행하며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온갖 형태의 인권유린행위들을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여왔다. 그러자 미국은 로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며 기구에 압력을 가하였다.

그러나 유엔인권리사회는 이스라엘의 인권유린행위를 계속 들추어내고 공개하며 들볶아댔다. 이것이 미국의 불편한 심기를 더 건드려놓았던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에서 저들이 똑 제일이며 저들이 내놓은것은 그 무엇이나 쭉쭉 다 내리먹는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예상외로 상상밖의 일이 벌어졌다. 바로 그래서 알찌근하고 부아통이 터진 미국이 변덕쟁이처럼 유엔인권리사회에서 나가겠다어쩌겠다 하며 밸풀이를 하였던것이다.

아마 미국은 저들이 기구에 들여놓는 기부금이 적지 않다는것을 념두에 두고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저들의 의사를 내리먹이려 하는것 같은데 너무나도 오만방자하고 치졸하다.

미국은 심히 오산하였다. 그 누구도 뜨끔해하지 않고있다. 오히려 미국의 유치한 행위는 세상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되고있다.

제 비위에 맞지 않으면 탈퇴하겠다고 변덕을 부리는 미국을 좋아할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유엔인권리사회에 미국이 없는것이 더 낫다는것이 공정한 국제사회의 평가이다. 미국의 변덕에는 제 말을 듣지 않는 기구는 필요치 않다는 《인권재판관》의 오만성이 비껴있다.

미국은 명심하여야 한다. 오늘의 세계는 미국의 오만과 압력이 통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본사기자 유선화

유모아

보는 방향이 틀렸다

어느날 극장에서 한쌍의 련인이 끊임없이 속삭이는데 역증이 난 앞에 앉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내가 연극을 보는데 대해 동무네는 반대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처녀가 《우리는 적극 지지해요. 그러나 동무는 보는 방향이 틀렸어요!》라고 말하였다.

*　　*　　*

조선의 관광

메아리사격관

평양의 청춘거리의 소나무숲속에 메아리사격관이 있습니다.

사격관의 본관에는 여러 사격장들과 함께 활쏘기장, 사격교육실 등이 꾸려져있으며 본관의 뒤에는 야외사격장과 야외식당, 체육장 등이 있습니다.



실내사격장에는 각각 8개의 사격좌지를 가진 50m보총사격장과 25m권총사격장이 꾸려져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꾸려진 광선총사격장과 전자권총사격장들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심리에 맞게 사격의 생동성을 한껏 살려주어 인기가 높습니다.



사격관의 2층에 있는 30m실내활쏘기장은 벽체와 바닥을 통나무와 잔디로 형상한것으로 하여 숲속의 자연미가 그대로 살아나게 꾸려져있습니다.

야외사격장에는 12개의 사격좌지가 있는데 25m권총사격, 50m보총사격좌지가 각각 5개 있고 11번, 12번좌지에서는 50m거리에서 꿩, 닭 등 살아있는 동물들을 목표로 사격을 합니다.

사격관은 이밖에도 식당과 상점, 휴식장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손님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시대적미감에 맞게 꾸려져있어 찾아오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자아내고있습니다.

이곳으로는 평양역앞에서 출발하는 메아리사격관행 뻐스를 타고 직접 갈수 있습니다.

*　　*　　*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서　　본사기자 임정국

나어린 소년단원들이 손에손에 꽃묶음을 안고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의 계단을 오르고있다. 조국수호전에서 유명무명의 렬사들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 애국주의정신을 심장깊이 새기는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조국해방전쟁참가자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고 그들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갈 결의가 차넘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782143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